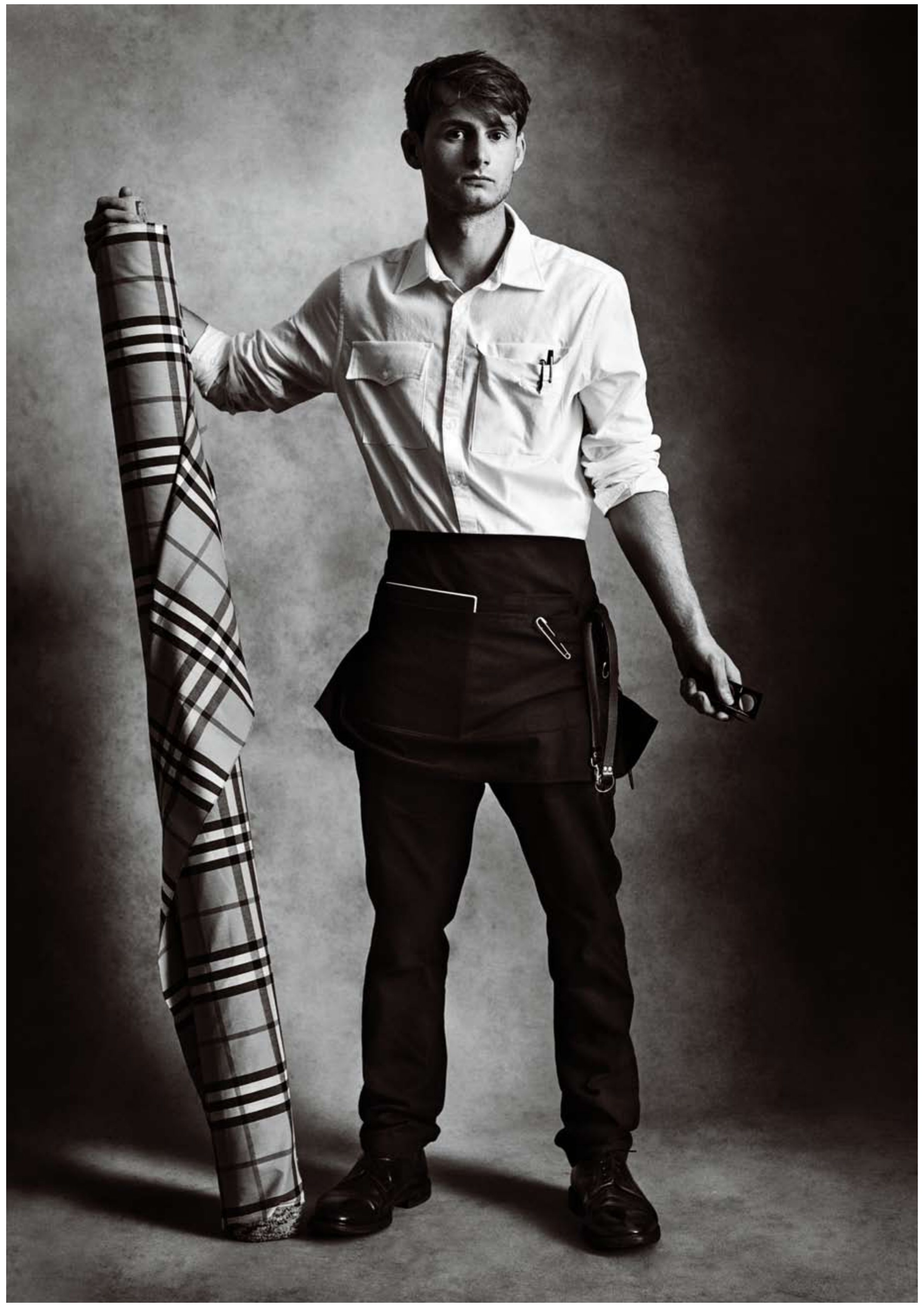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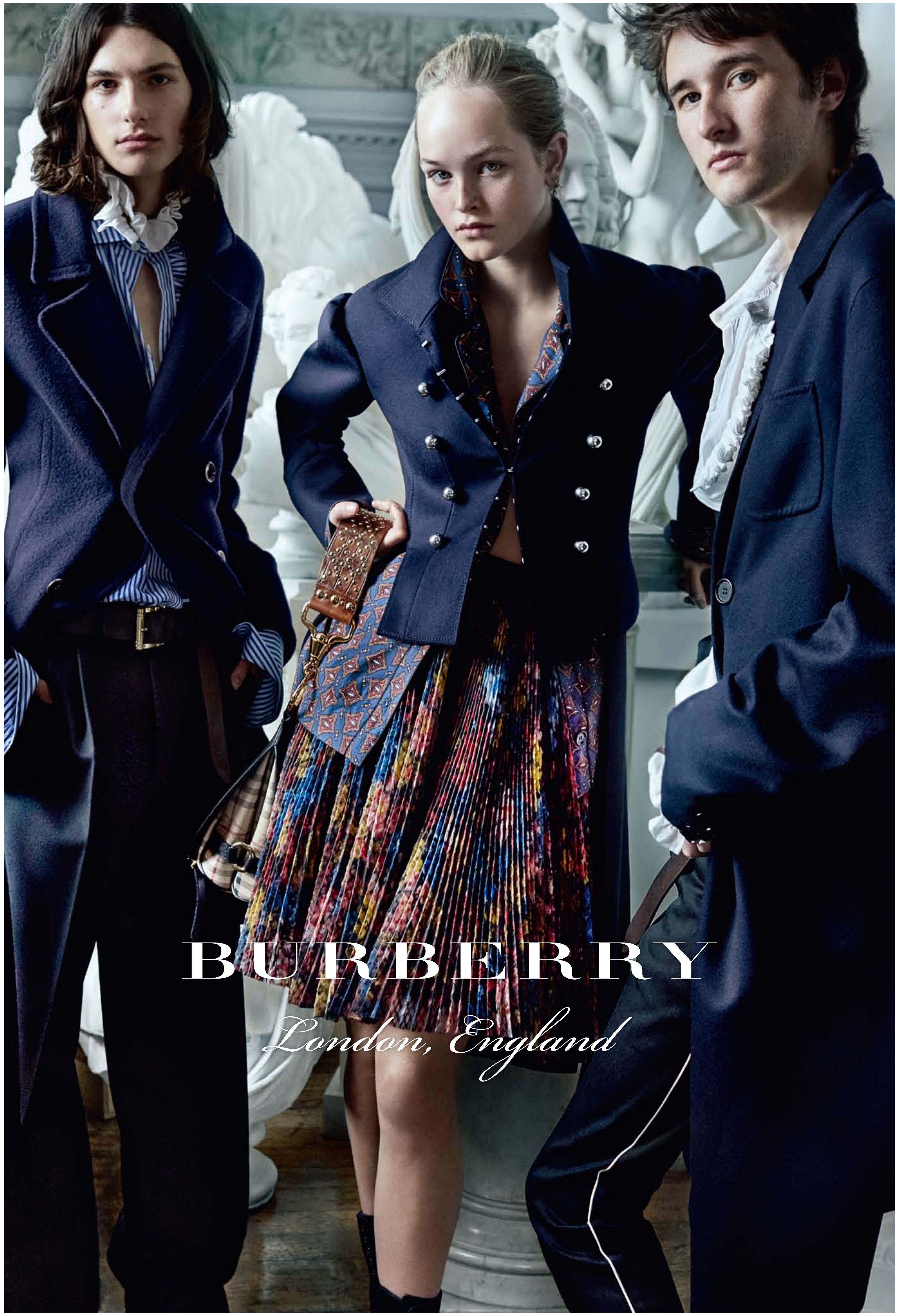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6
vol.147

Cactus de Cartier New Collection
Cartier



The Burberry Artisans
버버리 공장의 영국 출신 원단 감정사,
조지 에드먼드슨



Ermenegildo Zegna

42

30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까르띠에가 선인장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선보인 플로럴 주얼리 컬렉션, 칵투스 드 까르띠에(Cactus de Cartier) 링이다.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투조 세공으로 매혹적인 조각 작품처럼 강렬한 매력을 발산한다.
문의 1566-7277

32

10

14 **〈아상공화국〉을 가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도시화의 물결은 멈출 줄 모른다. 이 현상이 어떤 장단점을 품고 있든 상관없이, 지난 20세기가 '초대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세기'라는 주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 **CELEBRATE THE MEMORY**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멋진 기억을 주얼리에 남겨두는 것은 어떨까. 귀하고 특별한 날의 이야기를 담은 셀러브레이션 링 컬렉션.

20 **LOVELY LUXURY**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름다운 반짝임과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시간을 보는 즐거움까지 모두 갖췄다. 3백만원대 이하의 여성 워치 컬렉션.

22 **HYPER POWER** 뛰어난 기능성에 세련된 외관까지, 강렬한 매력을 갖춘 스포츠 워치 컬렉션.

24 **FEEL GENTLE** 클래식한 머스크와 우드, 유니크한 워터 베이스까지, 아주 특별한 남성 향수 컬렉션.

26 **FINE LIGHTING** 조명은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오브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유용한 아이템이다.

28 **READY TO WEAR** 트렌치코트부터 사파리 재킷까지, 올가을 꼭 구입해야 할 네 가지 베스트 아우터웨어.

30 **MEMORIAL WHEAT** 지난 8월 대만 타이베이의 중정 기념당 앞에 펼쳐진,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금빛 밀밭과 함께 아름다운 밀의 고귀한 모먼트를 담은 샤넬 화인 주얼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레 블레 드 샤넬(Les Blés de Chanel)'을 만났다.

32 **COMPLETELY CHARMING** 화려한 러플과 주얼, 자수, 프린트, 스터드, 퍼 장식…. 이번 시즌 패션의 주인공은 바로 백(bag)이다. 가장 돋보이고, 가장 완벽한 룩을 위한 백 셀렉션.

40 **CASUAL CHIC** 포멀한 슬랙스는 물론 여성스러운 스커트에 매치해도 멋스러운, 데일리 룩에 반전의 재미와 경쾌함을 더해줄 2016 F/W 여성 뉴 스니커즈 컬렉션.

41 **EPIC HEIGHTS** 시간과 세대에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아이그너만의 가치.

42 **PRAY, LOVE AND BE FRESHER** 체코 교외의 어느 작은 수도원.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프레쉬의 핸드메이드 라인인 '크렘 앙씨엔느 컬렉션'이 탄생하는 수도원에서 보낸 소박한 일상.

44 **NEUTRAL SHADE** 늦은 저녁까지 화사하고 보송보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메이크업 팩트에 있다.

45 **INTENSIVE FIRMING** 시슬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목 라인에 관한 이야기.

46 **EDITOR'S PICK** 올가을 트렌드인 '원 포인트 메이크업'을 위한 컬러 아이템과 매끈하고 촉촉한 스킨 & 보디 케어 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체험해본 뷰티 리스트.

47 **TRUE OIL** 전 세계 청정 지대의 유기농 식물성 원료만 사용하는 멜비타의 '오가닉 뷰티 오일'은 그 어떤 깐깐하고 엄격한 기준도 통과할,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오일이다.

48 **EMPATHETIC JOURNEY** 낭만적 음악 유목민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BMW 뉴 7 시리즈의 만남.

Style 조선일보
Issue.147 October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빈**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포토그래퍼 박건주

Jewel WEAR A SIGNATURE

그녀의 가녀린 팔목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시그너처 브레이슬릿.

(위부터 아래로) 깃털 모티브를 주얼리로 아름답게 재해석해 팔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플룸 브레이슬릿 1천4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가 특징으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제로원 브레이슬릿 1천6백만원대 **불가리.** 브랜드 이니셜인 알파벳 'T'의 직선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에서 존재감이 느껴지는 티파니 T 스퀘어 브레이슬릿 7백70만원대 **티파니.** 1970년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으로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착용 가능해 커플 팔찌로도 인기 있는 러브 브레이슬릿. 총 0.42캐럿의 다이아몬드 4개가 세팅되어 있다. 1천2백만원대 **까르띠에.** 옐로 골드, 블랙 오닉스, 크리소프레이즈로 이루어진 원형 모티브가 반복되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부통 도르 컬렉션 브레이슬릿 6천7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에디터 **권유진**

Fashion EFFORTLESS CHIC

F/W 시즌을 맞아 새로운 스타일이 필요한 10월, 패션계가 더욱 풍성해졌다. 고급 소재에 아름다운 실루엣을 더한 신규 여성복 브랜드를 속속 선보인 것. 공통점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시크한, 평소에도 쉽게 입을 수 있는 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 패션 전문 기업인 한섬에서 오랜 노하우를 담아 선보인 래트 바이티(LÄTT BY T). 품위 있는 디자인, 뛰어난 소재, 체형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담아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에이지리스(ageless)' 브랜드다. 지난 9월 26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자리 잡아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일을 제안할 예정이다. 피렌체 감성에서 영감을 받아 캐시미어 본연의 가치를 소개하는 새로운 브랜드 델라 라나(Della Lana) 역시 론칭과 동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센텀시티점에 그랜드 오픈했다. 정통 캐시미어의 품격과 현대적 감성을 담아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여성복 브랜드 안토넬리(ANTONELLI)도 취향이 세련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트렌디하면서도 우아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1950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감성을 담았다. 에디터 **배미진**

델라 라나

래트 바이티

안토넬리

포토그래퍼 박건주

Beauty SPECIAL HOME CARE

가을철 피부 관리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줄 마스크 팩으로 집중 홈 케어를 시작해보자.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 들뜬 각질을 말끔히 잠재워주고, 피부 본연의 환한 빛을 되살려줄 뷰티 팩을 모았다. 에디터 **이지연**

(위부터 아래로) 거칠어진 피부를 맑고 생기 있게 가꿔주는 필 오프 타입의 한방 팩, **'설화수 옥용팩'**. 황정(옥죽) 파우더와 꿀, 금은화 추출물 등 눈에 보이는 생생한 한방 성분이 피부에 쏙 스며들어 영양을 공급한다. 피부에 쫀득하게 발리며 30분 뒤 굳은 팩을 떼어내면 각종 노폐물과 묵은 각질이 함께 흡착돼 제거된다. 피부가 유독 칙칙해 보이거나 화장이 들뜰 때 사용하면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150ml 4만2천원대). 유난히 힘없이 축 처진 피부에 보다 확실한 나이트 케어를 원한다면 **'프레쉬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를 사용해보자. 일명 '코르셋 효과'라 불릴 만큼 밤사이 피부가 회복되는 사이클에 맞춰 피부에 영양과 퍼밍 성분을 전달해, 다음 날 한결 탄력 있고 탱탱한 피부를 느낄 수 있을 것(100ml 13만8천원대). 집에서도 전문 에스테틱 숍에서 관리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고 싶다면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럭스 슬립 마스크'**로 특급 홈 케어를 시도해보길. 이 오버나이트 크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사용하면 더욱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거듭나며, 잔주름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50ml 42만9천원). 건조한 환절기 날씨 때문에 피부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요즘, 모공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면 **'딥티크 멀티 유즈 익스폴리에이팅 클레이'**로 늘어진 모공을 관리해보자. 스크럽과 팩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만능 팩은 귀리와 쌀 파우더를 함유해 클레이 성분 특유의 땅김 현상이 없다. 또 향수 전문 브랜드이니만큼 피부를 마사지하는 동안 은은하게 퍼지는 바이올렛 향이 지친 심신을 안정시켜주기도(100ml 7만8천원).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에르메스

샤넬 화인 주얼리

Focus 세계적인 권위의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 전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 10~13일 롯데 호텔 서울에서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 전시가 개최된다.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GPHG : The 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는 2001년 스위스 제네바 주의 후원을 받아 공공 이익 기관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하이엔드 워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매년 남성, 여성, 주얼리, 컴플리케이션, 탁상, 제네바 인증 시계까지 총 6개 부문과 최고상을 시상하는데, 공식적인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 목요일 스위스 제네바 레만 극장(Théâtre du Léman)에서 갈라 디너와 함께 개최된다. 시상식 전에 후보에 오른 세계 최고의 시계들이 서울을 시작으로 로마, 제네바, 두바이까지 순회전을 여는 것. 올해는 한국의 시계 칼럼니스트가 전 세계 시계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시계 역사에 남을 최고의 하이엔드 워치들이 시계 전문가와 애호가는 물론 대중에게 공개되어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www.gphg.org, www.manual7.com 에디터 **배미진**

불가리

Exhibition 프랑스를 물들인 한지(韓紙)의 거장, 〈이진우展–비움과 채움〉

한지와 먹, 숯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현대미술 화가인 이진우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인 〈이진우展–비움과 채움〉 전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린다. 프랑스에서 주로 작업하는 이진우 작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으며, 1980년에 프랑스로 넘어가 한국의 정신과 색깔을 지닌 한지와 먹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세르누치 박물관과 조선에듀케이션이 공동 기획했으며, 이진우 작가의 최근 작품 중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한지를 겹겹이 붙이고, 그 위에 숯을 올린 다음 다시 한지를 붙이는 반복적인 그의 작업은 단순한 기법처럼 보이지만 동양의 정체성이 묻어남과 동시에 깊이와 감동마저 느껴진다. "수십 겹의 한지를 붙이는 반복된 노동을 통해 저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곤 해요"라고 말하는 이진우 작가는 단순 노동을 통해 자신을 비워낼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전했다. 자신을 지워야 가장 맑고 순수한 내면의 무언가가 작품에 드러나기 때문.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머물기를 소망한다는 작가의 바람이 이번 첫 개인전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오픈 당일 19일은 12시부터 입장 가능). 참조 http://edu.chosun.com/art 문의 02-724-7816 에디터 **이지연**

for her Selection

카키 컬러와 카무플라주가 즐비했던 밀리터리와는 완연히 다르다. 네이비와 블랙을 필두로 골드 버튼, 자수 디테일 등 장교의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뉴 밀리터리 시크 룩.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케이프 디테일의 더블브레스트 하프 코트 3백30만원대 **버버리.**

러기지 태그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토트백 53만원 **MM6.**

네이비 컬러에 레드 라이닝으로 포인트를 준 해트 1백만원대 **에르메스.**

세라믹 케이스로 새롭게 선보이는 아쿠아레이서 레이디 300m 쿼츠 1백93만원대 **태그호이어.**

다양한 그린 톤의 스톤으로 완성한 드롭 이어링 1백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빈티지함이 묻어나는 독특한 투 브리지 형태의 선글라스 40만원대 **월아이엠 by 에이본.**

화려한 금속 장식과 로프 디테일로 유니크한 분위기를 연출한 레이스업 힐 1백77만원 **프라다.**

코트 위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격인 와이드 벨트 7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유럽의 왕실 근위대를 연상시키는 퍼 장식 모자 1백만원대 **루이 비통.**

고전적이고 화려한 골드 자수 디테일의 앵클부츠 2백14만원 **에트로.**

타이거 헤드로 장식한 메탈 체인 링 1백39만원대 **구찌.**

형형색색의 컬러 스톤으로 완성한 크라운 모티브와 벨벳 소재가 어우러져 화려함을 자아내는 클러치 백. 17X10cm, 가격 미정 **랄프로렌 컬렉션.**

다양한 컬러의 스터드로 카무플라주 패턴을 완성한 토트백. 30X27cm,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앤티크한 매력의 커프스 링크 33만원 **카트린 오스티 by 10 꼬르소 꼬모.**

레드 벨벳과 골드 버튼으로 포인트를 준 코트 가격 미정 **페이.**

구찌 1577-1921
에이본 02-512-2225
버버리 080-700-8800
MM6 02-518-6980
보테가 베네타 02-515-2717
에르메스 02-542-6622
프라다 02-3218-5331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에트로 02-511-2573
루이 비통 02-3432-1854
랄프로렌 컬렉션 02-545-8200
태그호이어 02-548-6020
페이 02-3479-1619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어시스턴트 **이세영, 김수빈** 에디터 **이지연**

TASAKI

Avenuel World Tower 02.3213.2264 Hyundai Apgujeong 02.3438.6023 Hyundai Daegu 053.245.2247 Hyundai Pangyo 031.5170.2182 Hyundai Trade Center 02.3452.5558
Shinsegae Main 02.310.1854 Shinsegae Gangnam 02.3479.1232 Shinsegae Gyeonggi 031.695.1927 Shinsegae Centum City 051.745.1479 www.tasaki.co.kr

브랜드의 시그너처 라이닝이 돋보이는 캐주얼 백팩. 43X31cm, 1백만원대 **발리.**

패치워크를 가미한 타이거 프린트 파우치. 30X22cm, 29만원 **겐조.**

로프 레이스업으로 포인트를 준 부츠 2백만원대 **디올.**

쿨한 애슬레저 룩을 연출할 수 있는 베이스볼 점퍼 2백만원대 **지방시.**

for him

Selection

비비드 컬러의 사용부터 과장된 오버 실루엣, 반항적이면서도 귀여운 모티브까지, 스트리트 패션으로 물들인 하이엔드 브랜드의 유스 컬처 열풍.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렌지 색상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 높은 가독성은 물론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은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워치 7백만원대 **오메가.**

별과 번개 모티브를 사용해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완성한 선글라스 가격 미정 **구찌.**

크라운 버클이 돋보이는 벨트 87만원 **돌체앤가바나.**

블루 톤의 카무플라주 패턴 스니커즈 90만원대 **루이 비통.**

캐주얼한 재킷에 멋스럽게 두를 수 있는 실크 머플러 54만원대 **토즈.**

클래식한 수트 룩에 위트를 불어넣어줄 상어 모티브 커프스 링크 80만원대 **에르메스.**

레드와 네이비, 화이트의 경쾌한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니트 가격 미정 **몽클레르.**

브랜드의 상징인 이모티콘을 붙인 옐로 니트 모자 19만원 **아크네 스튜디오.**

앙증맞은 백 버그 백팩. 34X40cm, 2백49만원 **펜디.**

큼지막한 눈이 매력적인 동전 케이스 50만원대 **안야 힌드마치.**

돌체앤가바나 02-3444-0077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2-6622
펜디 02-2056-9023
안야 힌드마치 02-6905-3336
아크네 스튜디오 02-542-2290
발리 02-3467-8935
겐조 02-6905-3523
디올 02-3480-0104
지방시 02-517-7560
토즈 02-3438-6008
몽클레르 02-514-0900
오메가 02-511-5797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어시스턴트 **이세영, 김수빈**
에디터 **이지연**

MAXMARA.COM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들여다보는 글로벌 미술의 풍경

〈0상공화국〉을 가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도시화의 물결은 멈출 줄을 모른다. 이 현상이 어떤 장단점을 품고 있든 상관없이, 지난 20세기가 '초대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세기'라는 주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재능을 집약한 도시라는 엄청난 창조물이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는 시대에서도 부디 의미 있게 진화하기를, 창의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도시의 토양을 메마르지 않게 적셔주기를 바라고, 또 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듬으면서도 바깥 세상과 폭넓고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꾀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코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너도나도 '창조 도시'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차원의 창조 허브라 할 만한 도시가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1 유혜숙, '무제(Untitled)', 120X80cm, Acrylic Pencil on Canvas, 2011. 2 201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0상공화국〉 전시 풍경.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작가 35명이 인간의 신체를 주제로 예상치 못한 '비밀'을 폭로한다. 3 오마키 신지, '에코-크리스털화(Echoes Crystallization)'. 4 에로, '무제(untitled)', 118.5X113.5cm. 5 서용선, '자화상(Self Portrait)', 53X45.4cm Acrylic on Canvas, 2014. 6 한홍수, '지젝에 따른 신체 없는 기관(OwB selon Z)', 유화, 162X130cm, 2015.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남근인 '몸'을 보여준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남근인 '미사일'을 보여준 왕두 작가와 대비된다. 7 그자비에 루케치, '엄지(Pouce)', 60X60cm N°1/4, Medical Scanner, 2007. 엄지 속에 디지털 산수화를 펼쳐놓았다. 8 펑정지에, '중국 여인 초상화 연작 B(Chinese Portrait B Series No.19)', 유화, 91X91cm, 2006.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성, 내면과 외면 등 양쪽을 동시에 보려고 하니 자연스레 외사시가 된 현대인의 모습을 담았다. 9 김형기, '존재의 표정(Be-ing Space)', 80X80X180cm, Video Installation, 4 LCD Screen, Computer, Metal Structure, 2012.

'빛 고을' 광주는 이미 찬란한 역사를 지닌 예향의 도시지만, 20년 넘게 꾸려온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갈수록 풍부한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다. 올해 11회 광주비엔날레를 맞이한 이 도시에서는 오는 11월 6일까지 37개국 1백1명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 같은 기간에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예술 행사가 열려 아트 애호가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특히 탈아시아적인 축제에 걸맞게 지역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도 '글로벌한' 면모가 눈에 들어오는 행사가 흥미롭다. 그중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지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8월 24일~11월 6일)의 국외 작가전인 〈0상공화국〉을 기획한 심은록 큐레이터가 직접 작품을 소개한다. _by 에디터 고성연

〈빛, 생명, 물질–광주작가전〉, 그리고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다양한 자기 언어로 해석하며 예상 못한 신체의 비밀을 폭로하는 〈0상공화국–국제작가전〉. 올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은 이렇게 2개의 전시로 나뉘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두 가지 역사적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리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재)광주비엔날레,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주국제아트페어와 협력했다는 사실이다. 죽음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추구와 지속적 교류를 통한 소통, 치유, 화해의 상징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뜻깊은 협력이다. 두 번째는, 진정한 '벽' 허물기다. 이번 국제전 작가들 가운데 10여 명의 프랑스와 한국 작가는 '한불 수교 1백30주년'을 계기로 초대됐다. 하지만 이 전시는 한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 흥겨움과 고상함, 감성과 이성, 나와 너의 교류를 위해 여러모로 경계를 부순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광주비엔날레, 대중과 예술가 사이, 외국 갤러리와 한국 갤러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린다.

대우주적 지역성, 소우주적 신체성

먼저 〈빛, 생명, 물질–광주작가전〉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 광주는 역사적으로 깊은 어둠을 잘 아는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기에, 빛과 생명에 대한 이들의 감성은 남달리 예민하고 깊이가 있다. 광주 작가 25명이 '물질(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을 사용해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빛'을 발산하면서 '생명'을 감싼다. '광주 작가전'은 가장 근원적이며 포괄적인 주제인 '빛, 생명, 물질'에 천착하면서 '마크로코슴(대우주)'을 노래한다. "우주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백남준의 우주 오페라를 상기시킨다. 더욱이 올해는 이미 세 번의 우주 오페라 '위성중계 미디어 아트 작품'을 지휘한 백남준의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백남준 작가가 국제적인 미술 향연인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한 장소로 광주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산파 역할을 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제1회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에 개최).

반면 세계 곳곳에서 온 35명의 '국제전' 작가들은 그들의 '0상'을 마음껏 펼치며 '인간의 신체'라는 '미크로코슴(소우주)'을 다루고 있다. '신체'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주제를 통해 작가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르게 표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작가들의 신체 표현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신체 단면을 알려주겠다는 의도다. 요제프 보이스, 니키 드 생팔, 자크 빌르그레, 아르망, 펑정지에, 오마키 신지, 모리무라 야스마사, 다니엘 퍼먼, 방혜자, 권순철, 서용선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35명의 작가가 그들 고유의 국적을 초월해 0상공화국 국민으로서 참여한다. 전시 제목 '0상공화국'은 무엇을 의미할까? '0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상(空想)'이기도 하며, 조어적 의미로 '공간'이나 비움(空, vide)에 대한 이미지(像, image)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모든 편견이나 선입견을 유보하고, 0(zero)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다. 이는 현대 예술 사조 중 하나인 '다다(Dada)'의 정신을 되새겨보자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는 무한한 '0상'의 자유를 예술과 삶에 도입한 다다이즘 탄생 1백 주년을 맞는 해다. 다다이스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죽음, 폭력, 등이 만연한 것을 보면서, 당시까지의 모든 사상, 전통, 문화, 예술을 그 근본부터 철저히 재고해보자는 취지에서 1916년 취리히에서 다다 선언을 했다. 1세기가 지난 현재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끔찍한 테러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다다이스트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이념, 이에 따라 취한 행동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다시금 요청된다.

3개의 미사일 혹은 남근?

이제 전시장을 함께 돌아보자. 국제전 전시장 입구에는 왕두가 직접 광주에 와서 만든 미사일이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 10종류와 한국에서 출간된 패션 잡지 다섯 권을 사용해 '미사일'을 만들었다. 신문으로 만든 미사일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속담을 연상시킨다. 인간의 사건 · 사고를 전하는 신문이나, 유행을 다룬 패션 잡지는 재질적으로 '신체'와 관련된다. 또 미사일의 형태는 프로이트식으로 보면 일종의 '남근(phallus)'이다. 왕두의 미사일(남근) 2개는 정확하게 또 다른 거대한 남근을 겨냥하고 있다. 바로 한홍수 작가의 '지젝에 따른 신체 없는 기관(OwB selon Z)'이다. 캔버스에는 꽃분홍색 거대한 남근이 가득 차 있다(실제는 허리를 180도로 접은 상체를 그린 모습인데, 멀리서 보면 남근처럼 보인다). 프로이트의 시각으로 본다면, 왕두와 한홍수는 두 종류의 상반된 남근을 보여준다. 왕두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남근인 '미사일'을 보여준다면, 한홍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남근인 '몸'을 보여준다. 이는 프로이트의 말대로, '전쟁과 죽음의 욕망을 에로스적인 욕망으로 제어'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왕두의 파괴적인 남근은 작게 표현됐고, 한홍수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남근은 이를 압도하기 위해 크게 표현됐다.

또 다른 의미의 세 번째 미사일이 있다. 한국에서 채 한 살이 되기 전에 프랑스로 입양된 여류 작가 다프네 난 르세르장의 '사드(SHAAD : Sad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그것이다. 한국에 대한 그의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감동적이다. 영어 이니셜로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동음이의어 언어유희로 작품 '사드'는 시작된다. 고래 싸움에서 한국을 보호하고 싶은 작가의 애정 어린 손이 드리워 있다. 작품 배경이 되는 지도는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독일 지도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일제나 외국의 정치적 외교적 침략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작가는 손으로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전쟁과 폭력의 위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와 희생자들에게, 작가의 손을 드리워 보호하고 치유하려는 마음은 예술의 가장 근본적이며 숭고한 본질이기도 하다.

0상의 꽃씨를 담은 신체

오마키 신지의 4개가 한 연작인 작품 '에코–크리스털화(Echoes Crystallization)'는 멀리서 보면 무언가가 반짝이는 하얀 추상화처럼 보인다.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하얀 캔버스에 반짝이고 투명한 크리스털 가루로 마치 레이스로 수놓은 것처럼 꽃이 구상적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관람객은 그림으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전시장 바닥에 반사된 꽃의 그림자를 밟게 된다. 희귀종인 이 꽃은 관람객의 발자국에 밟혀 사라진다. 아름다움과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다가 의도치 않게 생태를 파괴한다는 뜻을 담은, 의식 있는 일본 작가 오마키 신지의 작품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직접 신체가 재현되지 않으나, 관람객의 발자국이 작품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됨으로써 작품이 전시장에서 완성된다는 현대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펑정지에의 '중국 여인 초상화 연작 B(Chinese Portrait B Series No.19)'에는 젊고 섹시하고 아름다운 중국 여성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의 외사시(外斜視) 눈동자는 관람객이 오래 바라보는 것조차 불편하게 만든다. 펑정지에 작품에 등장하는 이 완벽할 뻔한 여성은 이처럼 항상 외사시로 두 면을 본다. 예술과 자본, 고상함과 천박함, 고전(민속 예술과 언어)과 현대(대중 예술과 광고),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성, 삶과 죽음, 내면과 외면, 청색과 홍색 등 양쪽을 동시에 보려고 하다 보니, 펑정지에 그림 속 인물들의 눈은 자연스레 외사시가 된다. 이 고의적인 어색함과 불편함을 강조하는 펑정지에의 '외사시의 미학'은 사실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다. 전시장에는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요제프 보이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굵고 낮게 울리며, 생전에 선보인 그의 퍼포먼스를 떠오르게 한다. 이외에도 한국의 산하를 닮거나 오래된 고목을 닮은 듯한 얼굴을 그린 권순철, 메디컬 스캐너를 이용해 사람 엄지 속에 디지털적인 산수화를 펼쳐놓은 그자비에 루케치, 울퉁불퉁한 물고기 얼굴로 사람을 형상화한 모로코 출신의 작가 사디 아피피, 인간의 제스처를 프랑스식 우아함으로 형상화한 알랭 클레몽, 알록달록 원색을 사용해 여성 신체의 경쾌함과 즐거움을 재현한 니키 드 생팔 등 모두 신체를 통해 작가들의 독특한 0상을 풀어나간다. 아예 주저앉아 명상하듯 오랫동안 그림을 감상하는 관객들도 있다.

예술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되찾으려는 예술가들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미술을 둘러싼 지나친 상업화 풍토는 전 세계 예술가들과 예술 관계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다. 예술이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모두 우려하지만, 출구 없는 방처럼 막막하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많은 작가들이 지구상 여기저기에서 곤궁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작가들의 이런 숭고한 의지를 모으고, 점점 더 상업화 양상을 띠어가는 미술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자는 맥락에서, 올해 예외적으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는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유네스코에 기부한다. 작가들의 전적인 자유의사로 이뤄지는 이 기부는 광주미협이 모아 유네스코 본부에 작가들의 이름으로 전달한다. 0상의 씨앗과 같은 이 기부금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치유하거나, 그들의 교육이나 예술을 위해 쓰일 것이다. 그 덕분에 아름답고 진실한 0상의 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활짝 피어나기를 바란다. S 글 **심은록**(광주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국제 파트 큐레이터)

www.artistry.co.kr
아티스트리 뮤즈 테레사 팔머
갇혀있던
피부 산소력을 깨우다
당신의 스킨케어
피부 산소력까지 키워주나요?
즉각적으로 피부 장벽을 22% 더 강화시켜주고
산소 레벨을 8% 높여주는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부스팅 인퓨전
경험하세요
새롭게 차오르는 피부 산소력
사용 후 15분 경과, 피부 장벽 22% 강화
28일 간 사용 결과, 산소 레벨 8% 증가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부스팅 인퓨전
INTENSIVE SKINCARE BOOSTING INFUSION
ARTISTRY
INTENSIVE SKINCARE
Boosting Infusion
Infusion Revigorante
ARTISTRY™
글로벌 TOP 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2015 유로모니터 판매 매출 기준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의 외곽선과 반짝임을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어브스트랙 스타 다이아몬드 링 3백70만원대 **타사키.** 선명한 별과 유성의 빛나는 꼬리를 표현한 꼬메뜨 링 1천5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핑크빛 사쿠라 골드에 담수 진주로 별을 표현한 어브스트랙 스타 진주 링 2백50만원대 **타사키.** 옐로 골드와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를 세팅한 트리니티 링. 우정과 믿음, 사랑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1천만원대 **까르띠에.** 기품 있는 사자의 얼굴을 표현한 라이온 페피트 컬렉션 링. 화이트 골드를 입체적으로 세공하고 다이아몬드로 위엄과 품격을 표현했다. 1천2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독특한 고슴도치의 형상을 표현한 한스 스몰 링. 눈과 코 부분에 루비와 블랙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6백만원대 **부쉐론.** 하트 모티브의 불가리 불가리 큐오레 컬렉션. 큐오레는 이탈리아어로 사랑과 진심을 의미한다. 3백만원대 **불가리.**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핑크 오팔을 세팅한 아뮬레뜨 드 까르띠에 링 3백50만원대, 성공과 기회를 의미하는 그린 컬러 말라카이트 아뮬레뜨 드 까르띠에 링 7백8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화이트 골드 링에 런던 블루 토파즈를 세팅한 빵 드 쉬크르 마르 델 플라타 링. 위로 솟아오른 카보숑 세팅이 입체적이다. 7백만원대 **프레드.** 행운을 가져다주는 캐머마일 꽃을 표현한 캐머마일 미니 링. 5백만원대 **루시에.** 꽃 모티브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빅토리아 컬렉션 얼터네이팅 링 2천만원대, 플래티넘에 볼드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쉐어드 세팅 밴드 링 2천만원대, 골드 X 모티브가 눈을 사로잡는,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잔 슐럼버제 식스틴 스톤 링 1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진주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정교하게 표현한 에뚜알 펄리 꼬메뜨 컬렉션 링 1천5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팬지를 형상화한 팡세 드 디아망 라지 링. 화이트 골드에 1.5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천만원대 **부쉐론.** 그린 컬러 제이드를 세팅한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 핑크 골드 링.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이 인상적이다. 4백만원대 **불가리.** 우아한 왕관 모티브의 조세핀 아그레뜨 웨딩 밴드 3백80만원대, 조세핀 아그레뜨 솔리테어 링 3천만원대 모두 **쇼메.** 왕관 모양을 정교하게 표현한 위 닐도르 링 1천만원대 **프레드.** 뱀의 머리를 표현한 쎄뻥 보헴 화이트 골드 링. 화이트 골드에 8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4백만원대 **부쉐론.** 원 안에 커다란 별 모티브를 채워 넣은 꼬메뜨 링 1천1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에디터 **배미진**

까르띠에 1566-7277 **쇼메** 02-756-3359 **부쉐론** 02-3213-2246 **프레드** 02-514-3721 **타사키** 02-3461-5558 **불가리** 02-2056-0171 **티파니** 02-547-9488 **루시에** 02-512-6914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Celebrate *the memory*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 영원히 남기고 싶은 멋진 기억을
주얼리에 남겨두는 것은 어떨까. 귀하고 특별한 날의 이야기를 담은
셀러브레이션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Lotte Avenuel Main - Lotte Avenuel World Tower - Lotte Busan
Shilla Hotel Arcade - Debec Plaza

COLOMBO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몽블랑 보헴 문페이즈 쿼츠** 쿼츠 무브먼트지만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에서나 만날 수 있던 기능 중 하나인 문페이즈를 탑재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달의 변화를 관찰하는 즐거움을 더한 특별한 여성 워치. 우아한 실버 화이트 기요셰 다이얼이 돋보이는 27mm 사이즈의 케이스, 가독성 높은 블랙 컬러의 아라비아숫자, 6시 방향의 나뭇잎 모양 날짜창, 앨리게이터 스트랩까지, 하이엔드 워치의 면모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2백37만원. 문의 1670-4810

불가리 비제로원 스틸 워치 불가리를 대표하는 아이콘인 비제로원 컬렉션의 여성 시계. 상징적인 디테일인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를 더한 23mm 사이즈의 케이스, 주얼리를 연상케 하는 모던한 뱅글형 브레이슬릿이 스타일리시하다. 3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보메 메르시에 쁘띠 프로메스 가로가 살짝 긴 우아한 셰이프의 22mm 미니 사이즈 케이스와 팔목을 두 번 감싸는 더블 레더 스트랩이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하다. 스틸, 글로시 블루 레더, 비비드 오렌지 레더 등 세 가지 버전의 스트랩으로 선보여 본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자개 다이얼, 베젤 및 6시와 12시 방향에 섬세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매력을 배가한다. 3백21만원대. 문의 02-2118-6225

론진 돌체비타 이탈리아의 달콤한 삶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컬렉션으로, 부드러운 곡선과 기하학적인 라인을 미묘하게 결합해 현대적인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워치. 모던한 직사각형 케이스, 블루 컬러의 로마숫자 인덱스, 총 3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 세련된 레드 컬러의 앨리게이터 스트랩이 조화를 이뤄 화려한 기품을 자랑한다. 3백만원대. 문의 02-3149-9532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PM 1991년에 출시해 이제는 에르메스 메종을 상징하는 시계로 자리 잡은 케이프 코드 워치. 브랜드의 DNA를 담아 마구에서 영감을 받은 둥그런 커브와 독특한 러그 모양의 케이스가 특징이다. 컬러와 소재가 다양한 스트랩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스타일리시한 코드를 엿볼 수 있다. 3백만원대. 문의 02-3448-0728

태그호이어 까레라 레이디 칼리버 9 오토매틱 워치 합리적인 가격대의 오토매틱 워치를 찾는 여성에게 추천하는 시계로, 테니스 챔피언 마리아 샤라포바가 직접 디자인 작업에 참여해 세련미와 스포티한 매력을 겸비했다. 사파이어 백 케이스를 통해 칼리버 9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고, 가독성을 높인 28mm의 큰 다이얼에 세팅한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H 형태의 브레이슬릿, 얇은 베젤, 각진 혼 등 섬세하고 도회적인 디테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3백39만원대. 문의 02-548-6020 에디터 **권유진**

lovely Luxury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름다운 반짝임과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시간을 보는 즐거움까지 모두 갖췄다.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로! 3백만원대 이하의 여성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FABIANA FILIPPI

fabianafilippi.com

Hyundai / Main 02) 3438 6294 / Mokdong 02) 2163 1238 / Daegu 053) 245 2214 / Ulsan 052) 228 0252 / COEX 02) 3467 8582 / Pangyo 031) 5170 1238
Shinsegae / Gangnam 02) 3479 6287 / Gyeonggi 031) 695 1684 **Galleria** / East 02) 6905 3626 / Timeworld 042) 720 6287
AK Plaza / Bundang 031) 8023 2217 **Lotte** / Avenuel World Tower 02) 3213 2305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블랑팡 엘-에볼루션 수퍼 트리페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블랑팡과 람보르기니가 조우해 제작한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300km/h의 주행 기능을 갖춘 람보르기니 가야도르의 스피드에 걸맞은 긴장감 있는 최신 레이싱 워치를 위해 크로노그래프에 플라이백 기능까지 더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식, 알레르기에 강한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더욱 남성적이다. 문의 02-6905-3367 **에르메스 드레사지 크로노그래프** 클래식함을 고스란히 담은 크로노그래프 워치. 견고한 베젤 디자인에 간결한 디자인으로 데일리 워치로 착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스틸 케이스에 매트한 하바나 악어 스트랩을 매치했다. 1천4백만원대 문의 02-3015-3283 **까르띠에 칼리브 드 까르띠에 다이버 블루 워치** ISO 6425 국제 표준 규격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다이버 워치. 42mm 케이스, 선명한 블루 컬러의 베젤, 클래식한 오버사이즈 로마자까지, 볼드하고 강렬한 매력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제격이다. 케이스가 두툼한 일반적인 스포츠 워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두께가 단 11mm에 불과한 날렵하고 가벼운 다이버 워치를 완성했다. 자체 제작 무브먼트 1904-PS MC 칼리버를 탑재했고, 3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1천2백만원대. 문의 1566-7277 **불가리 옥토 마세라티**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와 협업해 탄생시킨 스페셜 에디션 옥토 워치. 정교하게 디자인한 1백10개의 단면으로 만든 베젤, 블루 다이얼에 오토매틱 와인딩, 5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워치로, 화이트 스몰 다이얼에 담긴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클래식함과 액티브한 느낌을 모두 갖추고 싶은 남성에게 추천한다. 1천만원대. 문의 02-2056-0171 **파네라이 루미노르 섭머저블 1590 카보테크 3 데이즈 오토매틱** 이탈리아 왕립 해군에 다이빙과 해저 관련 장비를 납품한 역사를 지닌 파네라이. 47mm에 달하는 강렬한 케이스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카보테크 소재가 만나 다이버 워치의 정점을 선보인다. 300m 방수 기능, 야광 숫자와 도트 인덱스가 있는 검은색 다이얼, 잠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회전 베젤까지, 클래식한 구성을 갖추었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3449-5922 **브레게 타입 XXI 3817** 헬리콥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자이로플레인(gyroplane)을 개발한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증손자 루이 샤를 브레게는 자신의 경험과 고찰을 토대로 1916년 브레게 XIV 비행기를 개발할 정도로 항공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브레게 타입 XXI 3817은 이 전설적인 스토리를 이어받은 크로노그래프로 1980년대 초기까지 공군과 해군이 착용할 정도로 기능적이다. 플라이백 기능과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에서는 낮과 밤 인디케이터의 움직임을,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은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에디터 **배미진**

Hyper *power*

고급 시계 분야에서 스포티함과 모던함은 항상 같은 길을 따르는 동반자다. 뛰어난 기능성에 세련된 외관까지, 강렬한 매력을 갖춘 스포츠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우오모 살바토레 페라가모** 오직 남성을 위한 신제품 향수. 전통적인 오리엔탈 우디 계열로 강렬한 블랙페퍼와 카다멈, 베르가모트의 조화가 고전적이다. 유쾌함과 모던함,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이탈리아 남성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향기로, 최초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저트인 티라미수 향기까지 담았다. 30ml 6만8천원. 문의 02-2143-7186

프레데릭 말 패브릭 퍼퓸 덩 몽리 '나의 침대에서(in my bed)'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침대 위에 뿌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패브릭 퍼퓸. 하이엔드 향수의 대명사인 프레데릭 말(Frederic Malle)에서 선보인 제품이기에 더 기대가 된다. 향기가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지속되어 매일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다. 풍부한 장미 향과 머스크의 우아한 조화가 정교하다. 100ml 15만원. 문의 02-3479-6258

불리 1803 오 트리쁠 향수 리켄 데코스 클래식한 패키지 디자인과 독특한 향기, 유니크한 부티크로 지난 8월 론칭하자마자 뷰티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불리 1803. 새로운 니치 향수 브랜드를 찾고 있는 남성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브랜드다. 야생 이끼와 제라늄 에센스를 더한 리켄 데코스는 파리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느낄 수 있는 향으로, 향수를 뿌린 자신과 그 장소까지 특별하게 만드는 품위 있는 향기다.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알코올이 없는 워터 베이스인 데다, 처음 개봉한 순간의 향이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고유의 워터 혼합법 기술력을 적용해 더욱 특별하다. 75ml 19만8천원. 문의 02-511-3439

아뜰리에 코롱 에메로드 아가르 말레이시아 아가 우드의 깊고 풍부한 향을 담은, 가을을 위한 향수. 캡을 열자마자 그윽한 나무 향이 가득 풍기고, 아주 소량만으로도 에센셜한 향기가 온몸을 휘감는다. 가장 희귀한 원료를 사용하는 아뜰리에 코롱 콜렉시옹의 메탈 라인으로, 금빛 보틀의 아름다운 자태도 매력적이다. 100ml 37만5천원. 문의 02-545-3142

메르세데스-벤츠 코롱 오데토일렛 에메랄드빛 그러데이션의 신선한 패키지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 제품. 향기 역시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시트러스 아로마틱 계열로 세련미와 심플함의 절정을 이룬다. 자몽과 만다린, 진저, 버베나, 블론디 우디와 베티베르까지, 향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상쾌한 기분이 든다. 가볍게 수시로 뿌릴 수 있는 향수를 선호하는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40ml 5만7천원. 문의 02-3443-1805

일루미넘 코어 레인지 트라이벌 블랙티 '나를 표현해주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의미로 2011년 영국에서 첫선을 보인 니치 향수 브랜드 일루미넘(Illuminum). 투명한 정사각형 보틀 위로 원형 캡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코어 레인지(Core Range) 컬렉션은 심플한 패키지가 매력적이다. 오렌지 노트에 베르가모트와 아삼, 재스민 같은 티 노트를 더해 투명하고 가볍지만 모던한, 잔향까지 상쾌한 완전히 새로운 향기를 경험할 수 있다. 100ml 21만7천원. 문의 080-800-8809 에디터 **배미진**

feel Gentle

향기에 대한 취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력적인 남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다. 클래식한 머스크와 우드, 유니크한 워터 베이스까지 아주 특별한 남성 향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fine Lighting

조명은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오브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유용한 아이템이다. 기능적인 것은 물론이고, 포인트 인테리어로도
손색없는 테이블 램프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골드 컬러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 실용적인 부기 램프는 페루초 라비아니의 디자인으로 1백14만6천원 **카르텔.**

프레임에 부착된 USB 케이블을 통해 충전이 가능해 더욱 실용적이다. 29만5천원 **모엠컬렉션.**

황동과 스틸 소재로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을 주는 램프 55만원 **까레.**

골드 컬러와 오팔 글라스 소재가 독특한, 포울 헤닝센 디자인의 리미티드 에디션 2백93만원 **루이스폴센 by 보에.**

우드 프레임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헤드 또한 위아래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램프 28만8천원 **가든트레이딩 by 세그먼트.**

1931년 크리스티안 델이 디자인한 카이저 이델. 고전적이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70만원대 **프리츠 한센 by 에이후스.**

알루미늄에 블랙과 골드 컬러를 사용해 모던함을 더했다. 89만원 **톰 딕슨 by 두오모.**

프레임을 움직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포울 헤닝센 디자인의 빈티지 램프 3백30만원 **루이스 폴센 by 보에.**

자작나무 소재 사이로 새어 나오는 은은한 빛이 매력적인 세포 코호 디자인의 램프 1백20만원 **섹토디자인 by 이노메싸.**

안드리아스 엔게스빅이 꽃잎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제품. 꽃잎을 회전해 조도를 조절할 수 있다. 19만9천원 **폰타나 아르테 by 몰테니앤씨.**

황동 프레임을 사용한 미니멀한 램프 1백4만원 **플로스 by 두오모.**

진행 **서민아**(리빙 칼럼니스트)

까레 02-545-9871 **두오모** 02-516-3022 **모엠 컬렉션** 070-8159-3159
에이후스 02-3785-0860 **이노메싸** 02-3463-7710 **카르텔** 02-517-2002
몰테니앤씨 02-543-5093 **세그먼트** 02-533-2012 **보에** 02-517-6326

TAILORED JACKET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완벽한 핏, 싱글 버튼, 질 좋은 소재 등 기본에 충실한 테일러드 재킷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현실적인 아이템이다. 어느 옷에든 단정하게 매치할 수 있어 실용적이기도. 이미 기본 솔리드 컬러의 테일러드 재킷을 가지고 있다면, 체크 패턴의 테일러드 재킷을 하나 더 구입해도 좋다.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캐시미어와 리넨 혼방 소재의 더블 버튼 재킷 3백96만원대 **로로피아나.**

TRENCH COAT
가을 하면 떠오르는 아우터는 단연 트렌치코트다. 더블 버튼과 버클이 달린 허리끈, 어깨 위 견장과 래글런 소매, 그리고 코튼 개버딘 소재 등 클래식한 트렌치코트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외에도, 최근엔 다양하게 변주된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클래식은 영원하다"란 말이 있듯이, 올가을엔 역시 가장 트렌치코트다운 트렌치코트가 정답이다.

코튼 개버딘 소재의 헤리티지 라인 트렌치코트 2백80만원 **버버리.**
고급스러운 감촉의 비버 털 소재 페도라 1백60만원 **로로피아나.**

ready to Wear

질 좋은 아우터 하나만 있어도 올가을 내내 즐겨 입을 수 있다. 트렌치코트부터 사파리 재킷까지, 올가을 꼭 구입해야 할 네 가지 베스트 아우터웨어.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어시스턴트 **이세영, 김수빈**
세트 스타일리스트 **조은정**

CHESTER COAT
펄럭이는 옷자락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한 체스터 코트. 본래 체스터 코트는 엉덩이를 덮는 기장에 몸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슬림한 핏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신체 비율이 훤칠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패턴만 잘 선택한다면 올가을과 겨울에 옷장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이 될 것이다. 에디터 **이지연**

깅엄체크 패턴의 체스터 코트 4백23만원 **프라다.**

로로피아나 02-546-0615
프라다 02-3218-5331
버버리 080-700-8800
페이 02-3479-1649
폴로 랄프로렌 02-6004-0220

SAFARI JACKET
아프리카 등에서 사냥이나 탐험 시 자주 입는 재킷에서 유래한, 일명 '헌팅 재킷'이라고도 불리는 재킷. 짧은 칼라와 함께 허리 라인을 조여주는 끈과 4개의 큼직한 포켓이 달린 사파리 재킷. 수트 위에나 캐주얼한 조거 팬츠 위에도 두루 잘 어울리며 남성이 추구하는 '자유로움'과 '클래식'을 모두 갖춘 재킷이다.

네이비 색상의 사파리 점퍼 79만9천원 **폴로 랄프로렌.**
톡톡한 소재감이 돋보이는 사파리 점퍼 1백53만원대 **페이.**

Audi Q7
위대한 변화의 시작

Audi Q7의 위대한 변화는 멈춰있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최대 325kg 감량된 무게와 더욱 넓어진 실내 크기, 회전 반경은 최소화하면서도 부드러운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4륜 조향 시스템, 교통 체증 구간에서도 자동 가속과 제동 및 조향까지 지원하는 Traffic Jam Assist,
그리고 최상의 시인성으로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Virtual Cockpit까지.
우리는 이것을 프리미엄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Audi Q7의 위대한 변화라고 부른다.
www.audi.co.kr

전시장
• 방배 02)523-1468 • 미아 02)982-2468 • 청담 02)516-2468 • 서초 02)521-0000 • 잠실 02)3430-9100 • 송파 02)3434-9100 • 대치 02)3415-9100 • 용산 02)797-1468
• 목동 02)2676-1468 • 동대문 02)2247-2460 • 한강대로 02)790-1468 • 도곡로 02)564-1468 • 수원 031)241-0033 • 천안 041)567-3111 • 분당 031)743-0000 • 판교 031)712-7777
• 안양 031)422-0000 • 평택 031) 653-3883 • 일산 031)905-1468 • 광교 031)263-0000 • 인천 032)465-1468 • 대구 053)744-7070 • 광주 062)525-8777 • 목포 061)284-1677
• 청주 043)265-7799 • 부산남천 051)611-3844 • 부산해운대 051)995-0000 • 울산 052)257-3883 • 대전 042)863-8787 • 군산 063)461-0110 • 원주 033)766-7786 • 춘천 033)263-4200
• 순천 061)746-7733 • 전주 063)915-0000 • 창원 055)245-2233 • 진주 055)924-0000 • 포항 054)275-0066

서비스센터
• 성수 02)3425-0033 • 영등포 02)2672-1468 • 대치 02)3415-0200 • 서초 02)597-8255 • 논현 02)540-3900 • 용산 02)798-1468 • 방배 02)535-1463 • 개포 02)573-1463 • 분당 031)715-8255 • 일산 031)905-1463
• 인천주안 032)429-2850 • 인천구월 032)465-1463 • 수원 031)634-0033 • 부산남천 051)628-0056 • 부산민락 051)626-0056 • 부산사상 051)995-0088 • 대구 053)350-8900 • 대전 042)862-8802 • 천안 041)563-5900 • 청주 043)285-8802
• 광주 062)524-5959 • 순천 061)724-3500 • 전주 063)290-0000 • 포항 054)283-3006 • 울산 052)227-2255 • 진주 055)754-8118 • 창원 055)245-0999 • 원주 033)764-8787 • 춘천 033)254-8787 • 제주 064)744-0911

서비스익스프레스
• 서초 02)3486-8255 • 삼성 02)563-0450

■차종 및 표준연비 • 차종명: 아우디 Q7 35 TDI quattro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2,224kg, 자동8단), 복합연비: 11.9km/l (도심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3.7km/l),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68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memorial Wheat

지난 8월 대만 타이베이의 중정 기념당 앞에 펼쳐진,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금빛 밀밭과 함께 아름다운 밀의 고귀한 모먼트를 담은 샤넬 화인 주얼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레 블레 드 샤넬(Les Blés de Chanel)'을 만났다.

매혹적인 행운의 상징, 밀

풍요, 재탄생, 번영, 행운, 끝없는 창의력의 상징, 밀. 평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곡물이지만, 가브리엘 샤넬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는 모티브다. 운명적으로 밀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추수감사절에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밀과 관련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던 그녀는 '나의 선한 밀'이라는 표현을 쓰며 밀이야말로 선하고 온전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현재까지 아카이브로서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캉봉가에 위치한 샤넬의 아파트와 리츠 호텔의 스위트룸, 라 파우자의 집에 가보면 실제 밀이나 목각과 브론즈로 만든 밀 모형, 밀 그림 등 밀을 표현한 장식이 주변을 가득 채운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밀 이삭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그만큼 밀은 그녀에게 매혹적인 행운의 상징이자 부적이었고, 샤넬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가브리엘 샤넬의 세계를 이루는 근본적 요소 중 하나인 밀은 비로소 이번 시즌,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승화되어 찬란한 빛을 선사한다. 밀의 탄생부터 노랗게 무르익는 순간까지 성장 주기의 고귀한 모먼트를 담은 62점의 하이 주얼리, '레 블레 드 샤넬' 컬렉션이 바로 그것. 샤넬 화인 주얼리에서 밀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전체 컬렉션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샤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62점의 오트 주얼리 피스는 밀의 라이프 사이클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행운, 번영, 행복, 재탄생이라는 네 가지 가치에 따라 구성했다. 그리고 보다 자연주의적 접근 방법을 통해 샤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탄생시켰다.

이번 컬렉션 론칭을 기념해 샤넬은 문화 예술 후원 활동의 개념으로 거리 예술 크리에이터이자 이벤트 기획자 가드 벨(Gad Weil)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블레 방돔(Blés Vendôme, 방돔의 밀)〉 전시를 지난 7월 한 달간 파리 방돔 광장에서 개최했다. 넓은 광장에 금색을 입은 밀을 가득 채워 이곳을 방문한 모든 이들이 밀로 가득 찬 정원을 감상하고 금빛 물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것. 이는 지난 8월 순회 전시로 대만 타이베이 중정 기념당 광장에도 설치해 레 블레 드 샤넬 컬렉션의 가치와 밀이 지닌 풍요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금 조명했다. 레 블레 드 샤넬 컬렉션 전시 관람을 위해 직접 방문한 타이베이 중정 기념당 앞에는 눈부신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금빛 밀밭이 눈앞에 펼쳐져 감탄을 자아냈다. 손으로 금색을 칠한 수만 개의 프랑스산 밀을 타이베이로 직접 가져와 이를 다시 수작업으로 광장에 하나하나 심었다고 설명한 가드 벨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밀을 표현하기 위해 밀의 각도, 무게 등을 세심하게 계산해야 하는 고도의 작업이었다고 그 과정을 전했다. 이 특별한 행사는 가브리엘 샤넬이 태어난 소뮈르에서도 전시될 예정으로, 농촌의 중요성을 다시금 조명하고 누구나 마음속으로 그려온 시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는 특별한 공간을 선사할 것이다.

2

밀이 전하는 고귀한 선물, 레 블레 드 샤넬

따스한 황금빛 태양 아래, 산들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을 거니는 한 여인. 사진 속 그녀의 아름다운 목선과 귓가, 탐스러운 헤어와 가녀린 손 위에서 빛나고 있는 주얼리는 풍요와 행운, 번영, 재탄생, 끝없는 창의력의 영원한 상징인 밀을 모티브로 한 샤넬 화인 주얼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레 블레 드 샤넬이다. 밀의 성장 주기를 담은 62점의 이 하이 주얼리는 부드러운 라인과 우아한 자태를 한껏 뽐내며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밀밭을 연상케 한다. 총 네 가지 모먼트로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초봄에 막 솟아난 보드라운 어린 밀을 테마로 해 다이아몬드, 페리도트, 크리스털 라인, 아쿠아마린이 어린 밀의 줄기 같은 투명함을 표현한 'Premiers Brins', 'Brins de Printemps', 'Brins de Diamants'과 다이아몬드, 옐로 사파이어, 펄 등으로 따스한 황금빛 태양 아래 빛을 발하는 수확 무렵의 밀을 표현한 'Moisson Ensoleilée', 'Bouquet de Moisson', 'Moisson de Perles', 밀 이삭이 꽃을 피우는 6월의 밀을 디자인한 'Champ de Blés', 'Impression de Blé', 'Blé Infini' 등 밀이라는 자연 모티브를 우아하고 모던하면서 가볍고 유연하게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Fête des Moissons' 네크리스는 하이 주얼리 워크숍에서 만든, 샤넬의 진정한 기술적 업적을 대변하는 마스터피스다. 1천2백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정중앙의 25캐럿 옐로 다이아몬드는 방돔 광장의 팔각형을 본떠 팔각 커팅해 샤넬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떠올리게 한다. 이 밖에도 'Légende de Blé' 네크리스는 실제 밀 이삭의 크기로 제작했는데,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유연한 형태의 목걸이 끝에 5캐럿짜리 나베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보석의 단면이 모든 각도에서 화려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세팅했고, 금속 부분 역시 완벽한 위치와 밸런스를 위해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그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대부분 화이트 골드나 플래티넘을 선택한 반면, 이번 컬렉션은 밀 이삭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 옐로 골드를 사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더불어 'Fête des Moissons' 목걸이와 커프스, 'Légendes de Blé' 목걸이, 'Blé Infini' 반지와 귀고리, 'Epi Solaire' 반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얼리로, 고귀한 밀 이삭의 모습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표현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문의 02-3442-0962

에디터 **권유진**(대만 현지 취재)

1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밀 이삭을 다이아몬드와 옐로 사파이어 등으로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샤넬 화인 주얼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Les Blés de Chanel'. **2** 샤넬과 이벤트 기획자 가드 벨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완성한 대만 타이베이 중정 기념당 광장에 설치된 황금빛 밀밭. **3** 실제 밀 이삭 크기로 제작한 'Légende de Blé' 네크리스. 목걸이 끝부분에 5캐럿짜리 나베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세팅 시간을 제외한 제작 시간만 무려 총 6백20시간이 소요되었다. **4**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밀을 표현한 'Fête des Moissons' 브레이슬릿은 제작하는 데만 무려 8개월, 세팅 작업은 한 달 정도 소요된,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마스터피스다. **5~7** 밀을 꼬아 만든 화관 형태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Fête des Moissons' 컬렉션. 25캐럿의 직사각형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목선을 유려하게 감싸는 디자인의 네크리스를 메인으로 링과 이어링, 팔찌로 구성했다.

3

4

5

6

7

Completely Charming

화려한 러플과 주얼, 자수, 프린트, 스터드, 퍼 장식….
이번 시즌 패션의 주인공은 바로 백(bag)이다.
가장 돋보이고, 가장 완벽한 룩을 위한 백 셀렉션.

photographed by **kim yeong jun**

진주 장식을 더한 블랙 니트 톱 4백67만원 **구찌.** 촉감이 부드러운 화이트 실크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스포트막스.** 플라워 패턴이 여성스러운 매력을 배가하는 메리제인 슈즈 가격 미정 **미우미우.** 레오퍼드 패턴의 토트백 5백만원대 **루이 비통.**

바이올렛 컬러 터틀 니트 톱 3백40만원, 얇은 깃털을 촘촘하게 채워 볼륨감을 준 스커트 가격 미정, 미니 체인 숄더백 가격 미정, 체인 장식 화이트 스틸레토 힐 1백30만원 모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파이톤 가죽을 트리밍한 스웨이드 토트백 2백만원대 **버버리.** 언밸런스한 실버 이어링 10만원 **넘버링.**

화려하게 빛나는 히비스커스 패턴의 코트 가격 미정 **프라다.** 베이지 컬러 니트 드레스, 얇은 가죽 벨트 모두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네 손가락에 착용하는 볼 장식 반지 가격 미정 **구찌.** 화려한 주얼 장식이 돋보이는 그린 벨벳 토트백 3백20만원대 **미우미우.**

벨티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버건디 컬러 풀오버 톱 가격 미정 **사카이.** 메탈릭한 골드 레더 플리츠 슬립 드레스 가격 미정, 부드럽고 풍성한 화이트 퍼 소재의 더블 T 백 3백50만원대 모두 **토즈.**

클래식한 화이트 러플 넥 장식,
골드 임브로이드 장식을
가미한 울 코트 모두 가격 미정
랄프로렌. 골드 스터드와 리본
디테일이 여성스러운 토트백
1백20만원대 **에스카다.**

퀼티드 블루종 재킷, 반달 형태의
네이비 클러치, 송아지가죽 소재의
크로스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레이스업 장식을 가미한 블랙 스커트
가격 미정 **프로엔자 슐러.**
진주 장식이 우아한 느낌을 주는
스틸레토 힐 1백10만원대 **미우미우.**
오른쪽 귀에 착용한 실버 미러 드롭
이어링, 왼쪽 귀에 착용한 미러
펜던트 이어링 각 8만원 **넘버링.**

우아한 블루벨 컬러 롱 코트 3백80만원대, 블루벨 컬러 플레어 니트 드레스 1백70만원대, 주얼 장식의 크리스털 벨트 1백30만원대 모두 **에스카다.** 블루 컬러 스트랩 힐 가격 미정 **스튜어트 와이츠먼.** 반짝이는 주얼 장식을 가미한 베이지 컬러 스웨이드 토트백 3백30만원 **랄프로렌.**

러플 디테일을 가미한 실크 울 미니드레스 2백1만원 **펜디.** 멀티컬러 스커트 1백7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부드러운 물결 형태의 가방 스트랩 1백14만원, 보태닉 가든 패턴 미니 피카부 백 9백22만원 모두 **펜디.** 진주 장식 더블 링 가격 미정 **구찌.**

헤어 **조영재**
메이크업 **최시노**(Urbandecay)
모델 **곽지영**
어시스턴트 **김혜인**
스타일리스트 **채한석**(raymondchae.com)

구찌 1577-1921
스포트막스 02-3467-8326
미우미우 02-541-7443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442-1830
보테가 베네타 02-515-5840
에르메스 02-3149-9532
펜디 02-2056-9022
살바토레 페라가모 02-2140-9666
사카이 02-3479-6173
토즈 02-3438-6008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버버리 02-3485-6536
넘버링 070-7561-6794
랄프로렌 02-545-8200
에스카다 02-3443-5760
프로엔자 슐러 02-3479-6082
스튜어트 와이츠먼 02-6905-3991

casual Chic

'무심한 듯 시크하게'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다. 포멀한 슬랙스는 물론 여성스러운 스커트에 매치해도 멋스러운, 데일리 룩에 반전의 재미와 경쾌함을 더해줄 2016 F/W 여성 뉴 스니커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 고유의 톡톡 튀는 패턴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할 신축성 있는 밴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니커즈 71만9천원 **에밀리오 푸치 by 쿤.** 벨벳, 페이턴트 등 다양한 소재와 앞코에 매치한 사랑스러운 비즈 플라워 장식이 눈에 띄는 레이스업 스니커즈 1백9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트레킹화를 연상시키는 도톰한 끈 장식으로 스포티한 무드를 강조한 블랙 러닝화 1백만원대 **에르메스.** 투박하지만 구조적인 굽 디자인이 특징인 화려한 실버 펄 스니커즈 99만원 **알렉산더 맥퀸 by 분더샵.** 앞코의 메탈릭한 포인트와 반짝이는 비즈 스터드, 태슬 장식을 더한 블랙 슬립온 2백18만원 **주세페 자노티.** 블랙 & 화이트 하운즈투스 패턴의 슬립온 98만원 **로저 비비에.** 거울에 반사되듯 매끈한 광택이 화려한 핑크 골드 컬러 스니커즈 98만원 **루이 비통.** 에디터 **권유진**

쿤 02-548-4504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에르메스** 02-544-7722 **분더샵** 02-2056-1234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루이 비통** 02-3432-1854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어시스턴트 **이세영, 김수빈**

버건디 컬러의 칼라 백을 품은 아이리스 아펠과 블랙 칼라 백을 들고 있는 모델 토니 가른.

Epic *heights*

94세의 나이로 전통 가죽 럭셔리 브랜드 아이그너(Aigner)의 뮤즈가 된 전설적인 스타일 아이콘, 아이리스 아펠(Iris Apfel). 아이그너의 2016 F/W 시즌 광고 캠페인을 통해 시간과 세대에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브랜드만의 가치를 우아하게 드러냈다.

장인 정신과 최고급 퀄리티, 그리고 완성도의 상징 '아이그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그너' 하면 말발굽 모양의 A 로고가 박힌 가죽 핸드백을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만큼 꾸준히 사랑받아온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아이그너에서 최근 대담한 움직임을 선보였다. 현존하는 90대의 최고령 스타일 아이콘인 아이리스 아펠(Iris Apfel)을 이번 시즌 광고 캠페인의 모델로 기용한 것. 그녀는 미국의 패션과 디자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오며, 최근 그래니 시크(granny chic)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유행시킨 인물이다. 사진 속 버건디 색상의 칼라 백을 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흡수하면서 현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 전통적인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아이그너의 가죽은 쓰면 쓸수록 광택이 나며 특유의 멋스러움과 깊이를 느낄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았다. 아이그너는 1965년 에티엔 아이그너(Etienne Aigner)가 탄생시킨, 독일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가죽 럭셔리 브랜드다. 최고 품질의 소가죽은 물론, 브랜드의 시그너처 색상인 독창적인 와인 컬러를 개발하는 등 가죽 제품 디자인에 뛰어난 면모를 보인 그의 감각은 유럽의 상류층에 각광받았고, 가죽 영역의 전통적인 패션 하우스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 아이그너가 가죽으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가죽을 손질하는 방법부터 최고급 가죽다운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그너의 가죽은 24시간 이내에 화학 성분을 사용해 가죽을 손질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식물성 무두질을 통해 무려 두 달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 전통적이며 자연적인 방식으로 손질한다. 그 덕분에 가죽 본연의 결이 최대한 살아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부드러운 빛을 띠게 된다. 이는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생산되는 합성피혁 제품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질 좋은 천연 가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죽 본연의 진정한 '멋'이다. 이렇듯 완벽하게 가공한 가죽과 정교한 금속 작업, 유서 깊은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아이그너의 가죽 제품은 항상 오랫동안 보존될, 변치 않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토끼털로 완성한 칼라 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잇 백, 칼라 백

아이그너의 2016 F/W 시즌 뮤즈로 선정된 94세의 아이리스 아펠. 그녀는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해온 패션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패션 아이콘이다. 아이그너는 패션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철학과 자유롭고 독창적인 감성을 이번 F/W 컬렉션에 그대로 담아냈고, 젊은 세대를 표방하는 아이그너의 모델인 토니 가른(Toni Garrn), 제이슨 모건(Jason Morga)과 아이리스 아펠이 함께한 캠페인을 통해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브랜드만의 가치를 드러냈다. 특히 아이리스 아펠은 '복잡한 것이 아름답고 단순한 건 지루하다(More is more and less is bore)'라고 이야기하며 그녀 특유의 과장된 스타일을 적절히 매치해 럭셔리와 진정성, 유쾌함을 표현해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이번 시즌 아이그너의 핸드백 컬렉션 중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칼라(Carla)' 백에 그대로 녹여냈다. 기존 트라페즈 형태의 '시빌(Cybil)' 백에 이어 아이그너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그너처 라인이기도 한 칼라 백은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진 간결한 라인이 돋보인다. 이에 더해 가방 양옆에 장식된 정교한 매듭 모양의 태슬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아이그너 하면 떠오르는 진한 와인 색상은 물론, 가장 베이식한 블랙 컬러와 함께 오릴락(프랑스 토끼 품종)의 털로 만든 디자인으로도 선보인다. 숄더 스트랩이 함께 내장돼 토트백과 숄더백으로 다채롭게 연출 가능해 포멀한 오피스 룩과 트렌디한 시티 룩 등 다양한 스타일과 연령대를 아우르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 이번 시즌 아이그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티앙 벡(Christian Beck)이 제안한, 산의 자연적인 색채에서 영감을 받은 스톤 그레이와 베이지, 로즈우드, 토프 같은 컬러의 아이템과 매치하면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은 쿨한 애티튜드를 보여준 사진 속 그녀들처럼,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의 칼라 백은 엄마와 딸이 취향을 공유하기에도 훌륭한 아이템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531-2173 에디터 **이지연**

Pray,
love and be fresher

체코 교외의 어느 작은 수도원.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프레쉬의 핸드메이드 라인인 '크렘 앙씨엔느 컬렉션'이 탄생하는 수도원에서 보내는 소박한 일상, 신제품 '크렘 앙씨엔느 수프림 페이스 세럼'이 수작업으로 제조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배운 뷰티 리추얼의 전통, 직접 확인한 수도사들과 프레쉬의 소중한 파트너십…. 지친 몸과 영혼, 그리고 피부가 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듯하다.

1

프레쉬 엘릭시어 앙씨앙 20ml 21만원대, 50ml 40만원대. 프레쉬 크렘 앙씨엔느 수프림 페이스 세럼 30ml 37만원대. 프레쉬 크렘 앙씨엔느 100g 45만원대, 30g 21만원대.

포토그래퍼 박건주

기도와 노동의 신성함을 담은 진정한 핸드메이드 컬렉션을 만나다

프레쉬는 궁극의 동안 피부 트리트먼트, 크렘 앙씨엔느 수프림 페이스 세럼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프레쉬를 대표하는 럭셔리 안티에이징 컬렉션인 크렘 앙씨엔느 컬렉션에서 출시한 신제품. 프레쉬 스킨케어를 대표하는 라인인 크렘 앙씨엔느 컬렉션에는 프레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에 뿌리를 둔 과학과 장인 정신, 그리고 진정성이 집약되어 있다. 이는 크렘 앙씨엔느(Crème Ancienne)가 세계 최초의 크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앙씨엔느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레쉬 크렘 앙씨엔느 수프림 페이스 세럼은 기원전 2세기, 왕의 명령으로 검투사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던 비법을 담아,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이국적인 뿌리 추출물과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해 뛰어난 효과를 선사한다. 이 귀한 성분들을 보존하기 위해 수도원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했으며, 혼합 성분이 노화의 징후를 막고 미래의 손상을 예방해준다. 또 주름을 완화하고 탄력과 광채를 높여주며 24시간 동안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입증된, 최고의 동안 피부 트리트먼트다.

"이 세럼은 귀하게 선별된, 영양이 풍부한 뿌리 및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의 놀라운 효과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지금까지도 귀하게 여겨질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왔습니다. 프레쉬 연구소에서는 이 귀한 성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제품은 주름을 완화하고 탄력과 광채를 강화해 노화의 징후를 막아줄 뿐 아니라,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손상도 예방해줍니다. 이 귀한 성분들의 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세럼은 하나하나 수도원에서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실키한 텍스처와 불투명한 색의 포뮬러가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탁월한 트리트먼트 및 영양 공급 효과를 선사합니다."_레브 글레이즈먼(Lev Glazman, 프레쉬 공동 설립자)

치유를 위한 전통 식물성 추출물로 만든 궁극의 크림과 세럼

수도원에서 이루어진 앙씨엔느 수프림 세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세럼에 포함되는 아홉 가지 진귀한 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레브 글레이즈먼, LVMH R&D 센터 베로니크의 시범으로 진행되었다. 수도원에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완성되는 크렘 앙씨엔느 수프림 페이스 세럼은 아홉 가지 뿌리 및 식물 성분으로 섬세하게 제조된다(삼칠 뿌리 추출물, 그레이터 갈랑가 잎 추출물, 레드 진저 뿌리 추출물, 인삼 뿌리 추출물, 생강 추출물, 에키네시아 추출물, 진저 워터, 호동 씨 오일, 메도폼 씨 오일). 프레쉬는 이 귀한 식물 성분들을 엄선한 후 이 성분들이 지닌 효능의 원천, 즉 뿌리와 뿌리줄기에 집중했다. 식물의 뿌리는 토양에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흡수해 식물이 대지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뿌리줄기는 땅속에서 줄기를 통해 영양분을 저장해 식물이 사계절 내내, 어떤 환경에서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강력한 성분을 지녔다. 이 진귀한 성분들은 부드럽고 매끈하며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위해 수작업으로 수확한 재료에서 엄선해 추출한다. 크렘 앙씨엔느 수프림 페이스 세럼은 이 진귀한 식물 성분들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원에서 핸드메이드로 아주 섬세하게 제조된다. 이렇게 과학적 혁신과 뛰어난 장인 기술이 만나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들어 탁월한 영양을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수프림 실키 포뮬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앙씨엔느는 철저한 비율과 그것을 철저한 온도에 맞춰 핸드메이드로 블렌딩하는 과정을 거친다. 비율과 온도가 맞지 않으면 원료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함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고, 이 모든 과정은 수도사 4~5명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앙씨엔느와 수도원, 그리고 에필로그

수도원에서 머문 1박 2일. 이는 그 어떤 뷰티 트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선하고도 신성한 경험이었다. 프레쉬와 특별하고 소중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회의 뜻을 이어받아 규율을 지켜나가는 수도원이다. 베네딕트 수도회의 규율에 따라, 수도원에서의 모든 생활은 묵언 생활로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은 모두 시간표에 따라 기도, 노동, 식사 등의 일과로 철저한 규칙 속에 이루어진다. 20분 정도의 점심 식사 시간에만 대화가 허용되며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오직 기도와 노동만으로 채워진다. 크렘 앙씨엔느를 제작하기 위해 프레쉬는 수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번번히 실패를 거듭했고, 수년간 고배를 마신 끝에 연락이 닿은 이 수도원에서 프레쉬의 창립자 레브와 알리나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어 레브가 바로 체코로 달려왔다고 한다. 공산주의가 자리 잡은 이후 다수의 체코 수도사가 프랑스로 망명했는데, 수십 년이 흘러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체코에 새로운 수도원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도사 8명이 거의 폐가나 다름없던 지금의 수도원에 정착했고, 이후 수도원장인 사무엘 신부의 진두지휘하에 수도사들이 직접 일해서 번 수익으로 공간을 확장해 지금의 수도원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총 40명의 수도사 중 오직 선택된 4~5명의 신부만이 앙씨엔느 작업에 참여한다. 그들은 하루에 총 일곱 번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에는 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수도회의 규율에 따른 노동 시간을 앙씨엔느 제조로 대체하고 있다. 프레쉬는 한 해 동안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과 그에 필요한 원료, 부자재 등 제작 과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해 수도원에 미리 전달한다.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생산 과정과는 다르게 모든 공정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또 연구소 담당자가 4개월에 한 번씩 수도원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서포트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 수도원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부분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왜 수도원에서?'라는 단순한 궁금증은 수도원에서의 일상을 경험한 후 제품에 대한 신뢰감과 아름다움에 대한 경건함으로 바뀌었다. 섬세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을 정직하고 경건한 환경에서 제대로 배합하고 완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레쉬와 수도원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며 철저한 믿음과 배려로 묶여 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인 하느님을 섬기며 매일 기도와 노동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앙씨엔느를 제작하는 순수하고도 정직한 삶. 그 모든 것이 녹아든 프레쉬의 크렘 앙씨엔느 컬렉션은 화장품 효능 그 이상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제품으로 기억될 것이다. 문의 프레쉬 고객상담실 080-822-9500

2

1 프레쉬 앙씨엔느 컬렉션을 대표하는 크렘 앙씨엔느(Crème Ancienne)는 수도원에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럭셔리 스킨케어 제품으로 과학, 장인 정신, 진실성이 집약된 제품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프레쉬 크렘 앙씨엔느 수프림 페이스 세럼은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이국적인 뿌리 추출물들과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뛰어난 효능을 선사한다. **2** 체코 교외에 위치한 수도원. 이곳에서 프레쉬의 크렘 앙씨엔느 컬렉션이 핸드메이드로 탄생한다.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실된 관계와 경건한 분위기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게 무척 인상적이다. **3** 깜짝 놀랄 만큼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는 프레쉬 크렘므 앙씨엔느 제품들. **4** 프레쉬의 공동 설립자인 레브 글레이즈먼(Lev Glazman). 인간미와 열정에 반하게 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5** 수도원에서 직접 제품의 핸드메이드 제작 과정을 보여주었다. **6** 프레쉬 크렘 앙씨엔느 수프림 페이스 세럼의 주요 성분은 귀한 뿌리 및 다양한 식물 성분으로,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임이 실험 결과 증명됐다.

3

4

5

6

neutral Shade

늦은 저녁까지 화사하고 보송보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메이크업 팩트에 있다. 더욱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하루 종일 예쁜 피부를 연출해줄 파우치 안의 비밀 병기, 2016년 메이크업 팩트 열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랑콤 소니아 리키엘 쿠션 팩트** 파우치에서 꺼내 드는 순간, 팝하고 위트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눈길을 사로잡을 이 팩트는 피부 톤을 균일하고 화사하게 연출해주어 큰 사랑을 받는 랑콤의 블랑 엑스퍼트 쿠션 팩트 패키지에 프랑스 패션 하우스 소니아 리키엘의 감각적인 터치를 더한 특별한 제품. 기존 블랑 엑스퍼트 쿠션의 리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고, 예쁜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장 가치가 있다. 13gX2개입(리필 포함) 6만8천원대. 문의 080-001-9500

겔랑 블랑 드 펄 브라이트닝 컴팩트 파운데이션 SPF 20 PA++ 습도, 온도, 기후,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웨더 핏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다크닝 현상 없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광채 피부를 선사하는 브라이트닝 기능의 콤팩트 파운데이션. 피부 톤을 고르게 보정하고 피지를 조절해 매트한 마무리감이 특징인 베이지 컬러 파우더와 다크 스폿을 완화하고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살려주는 화이트 일루미네이터를 결합한 제품이다. 특히 천연 진주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진주 유효 성분의 농축 복합물인 어드밴스드 P.E.A.R.L. 콤플렉스와 멜라닌 컨트롤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최근에 생긴 잡티와 미래에 생길 잡티까지 완화 · 예방하는 스킨케어 효능을 담았다. 8.5g 8만8천원대. 문의 080-343-9500

샤넬 르 뗑 울트라 뜨뉘 울트라웨어 플로리스 컴팩트 파운데이션 SPF 15 투명하면서도 커버력을 놓치지 않은 최적의 밸런스로,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자연스럽지만 결점은 완벽하게 커버해 매끄럽고 화사한 피부를 연출한다. 이는 빛을 반사해 분산시키는 반구 형태의 파우더와 모공을 커버하는 소프트 포커스 파우더를 결합한 2 in 1 기능의 퍼펙트 라이트 디퓨전 복합체 덕분. 이와 더불어 피부를 즉각적으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하는 흡수 파우더와 롱래스팅 효과를 선사하는 다당류, 아연 파우더 복합체, 피지나 물에 강한 레진 성분을 함유해 하루 종일 빛나는 피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13g 7만7천원. 문의 080-332-2700

설화수 퍼펙팅 쿠션 인텐스 귀한 적송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탄력을 끌어올리는 스킨케어 효과를 겸비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쿠션. 적송 외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는 매화 추출물을 더해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고, 설화수 메이크업 광학 연구를 집약한 래디언스 펄 파우더 콤플렉스의 섬세한 빛 반사 효과로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완성한다. 들뜸 없이 얇고 균일한 커버를 도와주는 미세 파이버 브러시 퍼프 역시 프리미엄 팩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포인트. 15gX2개입(리필 포함) 8만5천원대. 문의 080-023-5454

나스 올데이 루미너스 파우더 파운데이션 SPF 25 PA+++ 보송보송한 파우더와 촉촉하고 산뜻한 파운데이션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웨트 & 드라이 듀얼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파우더 파운데이션. 촉촉한 웨트 퍼프에 물을 살짝 묻혀 사용하면 커버력을 높인 실크처럼 매끄러운 피부를, 소프트한 드라이 퍼프로는 보다 가볍고 매끄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아미노산 결합체와 라이트 리플렉팅 콤플렉스 성분을 결합한 루미너스 인핸싱 테크놀로지가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피부 속 수분과 빛을 끌어올려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고 편안하게 가꿔준다. 12g 7만원. 문의 02-6905-3747

디올 캡춰 토탈 드림스킨 퍼펙트 스킨 쿠션 디올의 베스트셀러 안티에이징 라인인 캡춰 토탈의 뛰어난 스킨케어 효과를 담아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본연의 고급스러운 윤기와 균일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하는 쿠션 팩트. 피부 컬러와 가장 유사하게 어우러지는 피부 컬러 모방 성분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단순히 파운데이션이 피부 표면에만 컬러를 입히는 것과는 달리 자연 상태의 피부 컬러와 가장 유사한 톤을 찾아 투명하면서 자연스러운 피부 톤 보정 효과를 선사한다. 세범 컨트롤 테크놀로지가 불필요한 번들거림을 잡아주고,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는 텍스처로 바를수록 촉촉함과 광채가 배가되는 것이 장점이다. 15gX2개입(리필 포함) 10만원. 문의 080-342-9500

아모레퍼시픽 선 프로텍션 쿠션 SPF 50+ PA+++ 자외선과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 베이지 톤의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을 갖춘 선 프로텍트 쿠션. 끈적이지 않는 보송보송한 사용감의 쿠션 타입 자외선 차단제이니만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수시로 덧바를 수 있다.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피부 정화를 도와주는 보태니컬 톡스 기능과 고련피 추출물(인도 머구슬나무 껍질 추출물)을 함유해 공해에 의한 피부 오염을 완화해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준다. 또 핑크, 베이지 톤의 컬러는 울긋불긋하고 균일하지 않은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어 건강한 윤기가 흐르는 민낯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15gX2개입(리필 포함) 6만5천원대.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시슬리 끄렘므 뿌르 르 꾸 넥 크림 50ml 18만원.

intensive Firming

목은 나이를 가늠케 하는 확실한 증거다. 여성스럽고 섬세한 목 라인, 나이를 잊게 하는 아름다운 선을 원한다면 이 기사에 주목하라. 시슬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목 라인에 관한 이야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즉각적인 넥 라인 리프팅 효과, 끄렘므 뿌르 르 꾸 넥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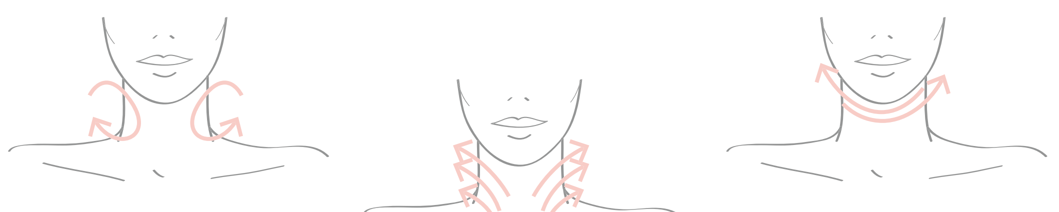
어깨 라인 뒤로 머리카락을 살짝 넘길 때, 가볍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잠시 드러나는 넥 라인은 여자를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드는 우아한 순간이다. 물론 귀 뒤부터 목 라인을 따라 흘러 쇄골 라인까지 이어지는 기품 있는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림프선을 자극하는 가벼운 마사지부터, 평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우아한 여성미의 상징인 네크라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스페셜 케어 제품이 필요한 것. 여성미와 우아함, 아름다움의 정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프랑스 뷰티 브랜드 시슬리는 이 특별한 라인을 위해 새로운 넥 크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이미 1981년 최초로 목 전용 크림을 선보인 바 있는 시슬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담은 것이다. 첫선을 보인 넥 크림 역시 오랫동안 보디 케어 제품 중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지켰고, 올해는 더 강력한 탄력을 선사하고 윤곽을 잡아주는 기능을 더해 신제품 끄렘므 뿌르 르 꾸 넥 크림을 선보이게 된 것. 넥 전용 크림을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미세한 주름과 가로 방향으로 보이는 주름 라인까지도 확실히 케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울을 통해 목 피부를 들여다보면 큰 주름 외에도 미세한 가로 라인과 세로 주름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벼운 주름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기에 얼굴에 크림을 바르듯 매일 목에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끈하고 어려 보이게, 시슬리의 이중 턱 케어

손끝으로 목 라인을 만져보면 이 부위가 얼마나 연약한지 바로 느껴진다. 얇고 여린 피부의 성질 때문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목 라인을 지지해주는 근육은 얼굴이나 몸의 근육에 비해 저항력이 약하고, 가로 주름과 미세 라인, 늘어짐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밀도와 탄력이 떨어지면 윤곽이 무너지고 중력의 영향으로 지방이 얼굴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이중 턱까지 생기게 되는 것. 이중 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활성 성분이 들어 있는 넥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슬리 끄렘므 뿌르 르 꾸 넥 크림은 활성 성분인 카페인을 함유해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에 홍조류 추출물을 담아 지방이 쌓이는 메커니즘을 지연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이 두 가지 활성 성분에 더해 마로니에 추출물이 토닝 효과까지 선사해 이중 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얼굴 윤곽선을 리모델링해주는 것.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퍼밍에 유효한 성분인 콩 섬유 추출물이 콜라겐을 포함한 피부 분자의 합성을 촉진해 탄력 손실을 줄이고 피부 톤을 개선한다.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목과 쇄골 라인이 탄탄해지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피부를 가볍게 쓰다듬듯이 아래에서 위로, 턱 라인을 따라 좌우로, 목 뒤에서 앞쪽으로 둥글게 쓸어내리며 바르는 시슬리의 넥 크림은 상쾌한 향기는 물론 풍부하고 크리미한 텍스처가 특징이다. 바를수록 피부가 깃털처럼 부드러워지고 가볍게 스며들기에 잠들기 전 발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빠르게 스며드는 텍스처는 시슬리 뷰티 제품 고유의 강점이기에 프리안티에이징을 원하는 20~30대는 물론 목 라인 케어가 시급한 40대 이상 여성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눈에 띄게 어려진 목 피부, 네크라인의 탄탄함을 위해 넥 케어 제품 구매를 고민하는 여성이라면 시슬리 끄렘므 뿌르 르 꾸 넥 크림이 좋은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80-549-0216 에디터 **배미진**

아름다운 목 라인을 위한 셀프 넥 마사지

처음 넥 케어를 시작하는 여성이라면 두 달간은 하루에 두 번, 끄렘므 뿌르 르 꾸 넥 크림으로 집중 케어를 하고 이후에는 데일리 루틴으로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일러스트를 따라 토닝, 퍼밍, 리파이닝으로 이어지는 마사지법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토닝 효과 마사지
소량을 덜어내 양손에 바른 후 오른손으로 목 왼쪽 부분에 원을 그리듯 마사지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왼손으로 목 오른쪽 부분을 마사지해준다.

퍼밍 마사지
목 아랫부분에 두 손을 얹고 목덜미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3회 반복.

리파이닝 · 리셰이핑 마사지
오른손을 이용해 턱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왼손을 이용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한다. 3회 반복.

editor's Pick

올가을 트렌드인 '원 포인트 메이크업'을 위한 컬러 아이템과 매끈하고 촉촉한 스킨 & 보디 케어 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체험해본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2016 F/W 리미티드 런웨이 팔레트** 아이와 페이스 메이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키트. 런웨이 위 모델처럼, 1단은 부드럽고 투명하게 빛나는 누드 펄의 시어 파우더, 2단은 매트한 블랙, 반짝이는 샴페인 누드, 우아한 라벤더 컬러로 구성해 섬세한 음영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9.5g 13만원대.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연*

입생로랑 루쥬 쀠르 꾸뛰르 베르니 아 레브르 너무도 유명한 입생로랑의 잇 아이템. 진한 발색력과 동시에 글로시함을 표현하기엔 이만한 제품도 없다. 덧바를 때마다 색상과 광택이 더해지니, 개인의 취향에 맞게 횟수를 조절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6ml 4만2천원대. 문의 080-347-0089_*by 에디터 이지연*

메이크온 스킨 라이프 테라피 빛과 컬러, 미세 전류를 활용해 피부의 수분, 톤, 탄력을 모두 끌어올리는 신개념 안티에이징 디바이스. 피부 세포를 활성화하는 블루, 옐로, 레드 등 세 가지 컬러의 파장을 적용했다는 점이 매우 새롭다. 사용법 역시 간단한데, 평소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디바이스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주듯 3분간 마사지해주면 끝. 눈가에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하며 손에 쏙 들어오는 핸디한 사이즈, 기존 디바이스에 비해 착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15만원. 문의 080-023-5454_*by 에디터 권유진*

바비 브라운 버핑 그레인스 포 페이스 일본 아주키(팥)로 만든 가루 타입의 천연 스크럽제. 바비 브라운 여사가 매일 쓸 만큼 극찬한 제품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붓결이 몰라보게 매끄러워진다. 에디터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평소 사용하는 클렌저에 섞어 사용하는데, 자극이 없고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세안 후 피부가 달걀흰자처럼 매끄럽고 보들보들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28g 5만8천원대. 문의 02-3440-2781 _*by 에디터 권유진*

베네피트 구프 프루프 브로우 펜슬 눈썹의 각과 모양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제품. 부드러운 텍스처를 담은 포뮬러가 다각형으로 깎여 있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넓은 부분으로 빈 곳을, 날렵한 앞부분으로 눈썹 산, 꼬리 부분을 그려주면 완벽한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 0.34g 3만4천원. 문의 080-001-2363_*by 어시스턴트 김수빈*

불리 1803 포마드 콘크레뜨 핸드크림 국내에 론칭하자마자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프렌치 뷰티 브랜드의 핸드크림. 패키지가 독특해 파리를 여행하는 이들이 꼭 구매해야 할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다. 캐머마일 수액과 세서미 시드 오일, 시어버터가 들어 있는 밤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아 부담 없이 자주 사용할 수 있다. 75g 5만8천원. 문의 02-511-3439_*by 에디터 배미진*

이솝 브레스리스 바디 오일 뚜껑을 여는 순간 피로 해소를 위한 아로마 오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산뜻한 향기가 매력적인 제품. 진한 향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향수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시트러스와 우드 향이 더해져 상쾌하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감싼다. 발뒤꿈치처럼 각질이 도드라진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해도 좋다. 100ml 4만2천원. 문의 1800-1987_*by 에디터 배미진*

나스 벨벳 립 글라이드 전 컬러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압도적인 발색력! 타 브랜드에서 선보인 리퀴드 타입 립스틱과는 다른 매력을 지녔다. 나스만의 오일 인퓨전 콤플렉스 포뮬러를 함유해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가볍고 선명하게 발린다. 5.7ml 3만7천원. 문의 02-6905-3747_*by 어시스턴트 김수빈*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브랜드를 대표하는 클렌징 워터와 더불어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이다. 로션을 충분히 적신 화장솜을 피붓결을 따라 가볍게 쓸어주듯 정돈한 뒤,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톡톡 두들기는 것으로 마무리해볼 것. 200ml 3만2천원. 문의 080-0011-7676 _by *어시스턴트 김수빈*

설화수 퍼펙팅 쿠션 인텍스 아시아의 귀한 원료인 적송 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설화수의 시그너처 성분인 매화 추출물까지 더해 풍부한 보습과 영양을 선사한다. 다양한 피부 톤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려 일곱 가지 컬러 팔레트로 선보인다. 15g 8만5천원대(리필 포함). 문의 080-023-5454_*by 에디터 이지연*

조 말론 런던 드라이 보디 오일 평소 우드 계열의 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보디 오일. 오일 스프레이 형태라 직접 손으로 펴 바르지 않고, 간편하게 보습이 필요한 곳에 살짝 뿌려주기만 하면 된다. 풍부한 앰버와 블랙 오키드, 블랙 카다멈 향이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100ml 11만5천원대. 문의 02-3440-2750_*by 에디터 이지연*

랑콤 압솔뤼 렉트트레 로즈펄 앰플 마스크 아름다운 핑크빛 펄이 눈을 사로잡는 독특한 제형. 로즈 오일을 앰플에 고스란히 담은 독특한 마스크로 집중 케어 제품이라 생각하면 쉽다. 미세 유체 공학 캡슐 테크놀로지로 랑콤의 장미 줄기세포를 담아 재생 효과가 뛰어나다. 53만원대. 문의 080-001-9500_*by 에디터 배미진*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스킨 리뉴얼 앰플 환절기마다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 톤이 고민이었는데, 이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 2주간 사용해보니 그 고민이 말끔히 해결되었다. 강력한 그린티 성분의 고농축 앰플이 총 4세트로 구성된 이 제품은 총 4주 동안 피부를 집중 관리해주는 안티에이징 케어 제품이다. 바르는 즉시 에스테틱에서 케어를 받은 것과 같은 즉각적인 피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7mlX0.6g(4세트) 54만원대. 문의 080-023-5454_*by 에디터 이지연*

1

1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르간 오일 50ml 4만8천원대, 아르간 오일 125ml 8만2천원대, 아르간 롤 온 오일 10ml 2만원대, 아르간 바디 버터 100ml 2만9천원대, 아르간 플러스 세럼 오일 30ml 6만2천원 모두 **멜비타**. **2** 모로코의 에사우리아 지역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아르간 열매. **3** 멜비타만의 전통적인 냉압법으로 순도 높은 유기농 아르간 오일을 추출한다.

true Oil

오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오일이 아니다.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하는 광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은지, 깨끗하고 질 좋은 원료를 공정한 공법으로 추출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청정 지대의 유기농 식물성 원료만 사용하는 멜비타의 '오가닉 뷰티 오일'은 그 어떤 깐깐하고 엄격한 기준도 통과할,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오일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진정한 오가닉 코즈메틱을 만나다, 멜비타

수없이 많은 코즈메틱 브랜드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오가닉'을 이야기할 때, 페이스 제품부터 샴푸, 보디 제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에 달하는 전 제품을 오가닉으로 생산하고, 이들 모두가 유기농 인증인 에코서트와 코스메비오를 획득한 유일무이한 브랜드가 있다. 바로 프랑스 오가닉 스킨케어 브랜드 멜비타(Melvita)다. 전 세계의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과 과일을 직접 수확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멜비타는 현재 보유한 천연 성분만 해도 무려 5백80여 가지. 모두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이 모든 귀한 원료에서 순도 높은 유기농 성분을 추출하고, 동물 테스트를 배제한 독립적인 실험을 통해 정직하고 완성도 높은 유기농 화장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탄생한 멜비타의 제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파라벤, 실리콘, 합성 계면활성제 등 피부에 유해한 합성 원료를 일절 함유하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 제작 공정 역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 에코서트와 코스메비오를 획득한 만큼, 말로만 유기농을 주장하는 화장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처럼 건강한 환경과 피부를 모두 생각하는 멜비타는 품질 높은 유기농 화장품을 선보이겠다는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사동 가로수 부티크를 포함해 여의도 IFC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파미에스트리트, 파르나스몰, 현대백화점 판교점 앳뷰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그리고 공식 온라인 부티크(kr.mevita.com)에서 판매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 화장품을 찾는다면 지금 바로 멜비타 매장을 방문해보자.

2

3

모로코에서 온 유기농 아르간 오일의 힘

멜비타는 기초 스킨케어 제품부터 기능성 화장품, 헤어, 보디, 서플리먼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유기농 화장품을 선보이는데, 이 중 멜비타를 대표하는 제품이자 베스트셀러는 어떠한 첨가물 없이 100% 순수 원료만 담은 '오가닉 뷰티 오일'이다. 피부 타입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일곱 가지 오일 중, 특히 모로코 여인들의 피부 비법으로 잘 알려진 아르간 오일은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제품. 그도 그럴 것이 6~8월,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모로코의 청정 지역인 에사우리아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귀하고 영양가 높은 유기농 아르간 열매 너트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로코 여성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수확하고, 재료를 다듬어 고유 냉압법으로 추출하는 과정까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오일이다. 피부의 산화 작용을 방지하는 비타민 E와 오메가 6·9을 풍부하게 함유해 천연 유수분 보호막을 강화하고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고 매끄럽게 유지시킨다. 또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발라도 안심이다. 보통 오일을 생각하면 번들거리고 끈적일 거라는 편견 때문에 사용을 꺼리거나, 사용 후 닦아내기도 하는데, 멜비타의 아르간 뷰티 오일은 끈적임이나 미끈거림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것이 장점이다. 오일 마니아인 에디터는 집에서는 물론 사무실 책상 위, 차 속에도 한 병씩 두고 쉽게 건조해지는 손, 팔꿈치, 하얗게 트는 종아리와 입술 주변, 모발 끝에 수시로 바르는데, 겉돌지 않고 피부가 촉촉하고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페이스 세럼이나 크림에 섞어 발라도 좋고, 잠들기 전 충분한 양을 덜어 수면 마스크 대신 사용해도 효과적. 특히 건조함으로 메이크업이 들뜰 때 파운데이션에 소량 섞어 바르거나 메이크업 전 화장솜에 오일을 듬뿍 묻혀 건조한 부위에 팩을 한 뒤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 마치 찹쌀떡처럼 피부가 쫀쫀해지는 것은 물론, 물광 효과를 더해 메이크업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다. 멜비타 아르간 라인은 기존의 50ml 용량과 더불어 올 10월 용량 대비 가격을 낮추어 새롭게 선보이는 125ml 사이즈 뷰티 오일, 휴대가 간편한 롤 온 오일, 아르간 오일을 함유한 세럼 텍스처의 아르간 플러스 세럼 오일, 보디 피부를 벨벳처럼 부드럽게 가꿔줄 아르간 바디 버터 등으로 구성해 취향과 목적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문의 02-544-2505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멜비타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멜비타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 여러분께 멜비타의 베스트셀러 '오가닉 아르간 오일 125ml' 출시를 기념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New 아르간 오일 125ml' 구매 시, 아르간 바디 버터 100ml 정품(2만9천원 상당)을 증정합니다.

❖ **증정품** New 아르간 오일 125ml 구매 시, 아르간 바디 버터 100ml 정품 증정 ❖ **기간** 2016년 10월 5~30일
❖ **증정 매장** 멜비타 전 매장에서 사용 가능(면세점 제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파미에스트리트(02-3479-1831), 신사동 가로수 부티크(02-544-2505), 여의도 IFC몰(02-6137-5101), 파르나스몰(02-3453-2660), 현대백화점 판교점 앳뷰티(031-5170-319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051-745-1425)

※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ECOCERT ORGANIC COSMETICS
ORGANIC COSMETIQUE BIO CHARTE COSMEBIO

BMW 뉴 7 시리즈와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이룬 공감

empathetic Journey

낭만적 음악 유목민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박종화. 그가 음악과 함께해온 인생은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운명처럼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피아노를 통해 수많은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했다. BMW 뉴 7 시리즈와의 만남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빛나는 기술과 감성을 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훌륭한 매개체로 승화한다는 점에서, 이 둘의 만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박종화 교수(서울대 음대)는 차분하고 섬세한 인상 이면에 반전의 취향을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 레이싱 트랙을 경험한 적도 있을 만큼 자동차와 운전을 좋아하는데, 특히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BMW M3는 소년 시절부터 손에 꼽던 드림카 중 하나라고 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BMW의 스포츠 성능을 품격과 안락함을 두루 갖춘 최고의 세단인 뉴 7 시리즈를 타면서도 변함없이 만끽하고 있다.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의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차체가 큰데도 거대하거나 둔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이 타이트하고 운동신경이 훌륭해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BMW 고유의 ‘킥’이 느껴지면서 다이내믹하게 움직입니다. 딱 BMW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손가락 움직임을 감지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제스처 컨트롤이나 기능 조작과 음성인식은 물론 터치 방식까지 가능해진 디스플레이 등 운전을 더 편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도 놀랍고요.”

누구보다 냉철하고 섬세하게, 연주와 드라이빙의 공통분모

그는 자동차의 안전도 차량에 적용한 안전장치보다는 성능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도로 위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핸들링이 유연해야 하며, 정확한 지점에 정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능력이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라고 여기는 그에겐 BMW야말로 자신의 안전 철학에 들어맞는 성능을 갖춘 차인 셈이다. 자동차가 이러한 냉철한 성능을 발휘해 운전자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신경의 화학적 흐름을 한 치의 지체도 없이 손가락에 직관적으로 전달해 움직여야 관객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비슷하다고 했다. “피아니스트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본질은 관객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풍부한 지적 아이디어와 감정의 깊이를 갖추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손가락 끝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소통할 수 없어요. 피아니스트가 무대 위에서 연주할 때 요구되는 집중도 역시 레이스 드라이버가 트랙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달릴 때와 비슷해요.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인 듯해요. 고속으로 달릴수록 무대 위에서처럼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거든요.” 그가 달려온 인생길도 계기반의 바늘이 치솟을 때처럼 빠르고 짜릿하며 흥분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5세에 도쿄대 영재반 수석 입학, 1995년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최연소 입상, 33세에 서울대 음대 교수 임용.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모든 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왔다고 했다. 전략적으로 목표를 세워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음악이 자신을 선택해준 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이다. 그는 성공을 거듭하며 눈부신 행보를 이어오면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다. 머릿속엔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호흡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클래식 전용 홀에서 벗어나 소극장 공연을 기획한 것이나 예술의전당에서 펼친 2016 교향악 축제를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인 것도 소통에 대해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지닌 그의 아이디어를 더한 것이다.

나눔으로 통(通)하다

“일정한 장소에서 무대와 관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콘서트의 틀 안에서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고 싶어요. BMW 코리아가 후원해 함께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Music in Motion’도 그런 취지에서 기획한 거예요. 피아노는 400~500kg에 이르는 무게와 큰 사이즈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대표적인 악기잖아요. 그 피아노를 실은 트레일러를 BMW 차량이 끌고 관객을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피아노에 의미 있는 모빌리티를 부여한 거죠. 콘서트홀이 아닌 의외의 공간에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더 유연한 맞춤 공연이 가능해집니다. 피아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야외든 좁은 실내든 상관없어요.” 그러한 기획 의도로 이뤄진 첫 공연은 지난 8월 19일 충북 진천군의 에버다임 공장에서 열렸다. 건설 중장비 공장에서 들리는 드릴, 해머, 엔진 등의 다양한 소리를 미리 채집 · 분리하고 합치는 과정을 거쳐 멋진 연주곡으로 변환했다. 클래식 음악에 큰 관심이 없는 이도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내 연주를 오롯이 즐겼고, 눈을 감은 채 감상에 빠진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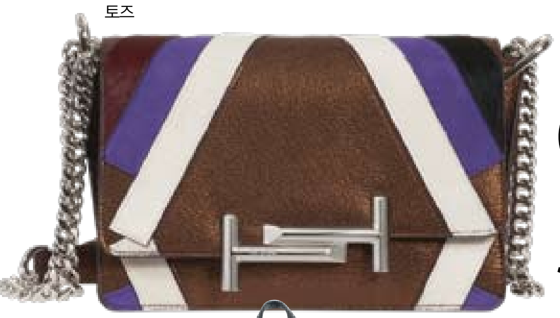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요? 혁신이란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구하는 클래식 음악도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보태 새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행기 앞날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르는 ‘리딩 에지(leading edge)’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바람과 공기의 마찰이 가장 심한 리딩 에지로 어떤 방해물이든 뚫고 나아가는 것처럼, 누군가 인정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금세 이어지지 않아도 혁신에 대한 신념과 열망을 갖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음악이 지금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박종화 교수는 BMW 코리아의 사회 공헌 의지와 실행에도 큰 공감을 표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후원하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다음학교,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위한 희망나눔학교에 가본 후 BMW는 역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장기적으로 작은 부분까지 꾸준하고 세세하게 관여하고 살피더라고요. 나눔이 사랑과 평화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소신이나 철학과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뉴 7 시리즈가 그랬던 것처럼, 본질을 지키고자 고민하고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으며 늘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박종화 교수는 운전하지 않을 때도 안락한 뒷좌석에 앉아 마치 라이브로 듣는 듯한, 바우어스앤윌킨스(B&W) 오디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젖는 시간을 즐긴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관객이 될 우리는, 그 순간 떠올린 영감이 또 어떤 형태의 소통과 나눔으로 실현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글 **이정주**

1, 5 BMW 뉴 7 시리즈와 피아니스트 박종화. **2**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넓고 편안한 뉴 7 시리즈 뒷좌석. **3**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뉴 7 시리즈 바우어스앤윌킨스(B&W) 오디오 시스템. **4** BMW 뉴 7 시리즈의 터치 디스플레이.

자료 제공 BMW 코리아

SHOWROOM


토즈

델보

아이그너

콜롬보 노블 파이버

파비아나 필리피

막스마라

펜디

에르메네질도 제냐

미우미우

FASHION

토즈 더블 T 백 토즈는 새로운 아이코닉 아이템으로 등극한 '더블 T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더블 T 형태의 버클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는 더블 T 백은 어느 룩에 매치하든 두루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전 세계 수많은 셀러브리티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템. 2016~2017 F/W 컬렉션을 통해 새들 스티칭을 더한 버전과 기하학적인 패턴을 완성한 패치워크 버전, 퍼 장식 혹은 큼직한 가죽 태슬을 가미한 버전 등 다양한 디테일로 완성한 새로운 더블 T 백을 선보였다. 문의 02-3438-6008

델보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캉가루 백 델보는 2016 F/W 컬렉션을 통해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캉가루 백을 출시한다.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캉가루 백은 레드, 네이비, 화이트, 그리고 태극 무늬를 활용해 디자인했다. 기존에 선보인 캉가루 백보다 어깨끈의 길이가 길어졌으며, 가죽으로 제작해 더욱 견고하고 편안한 느낌을 선사한다. D 모양의 포켓 형태로 접을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난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캉가루 백은 델보 공식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49-5916

에스카다

에스카다 싱글 버튼 롱 코트 에스카다는 2016 F/W 컬렉션 키 룩으로 선보인 싱글 버튼 롱 코트를 제안한다. 코트 소재로 쓰인 캐멀은 섬세하게 채취한 캐멀 퍼를 에스카다만의 혁신적인 공법을 통해 균일하게 염색해 최상의 퀄리티를 완성했다.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우아한 품격을 선사하는 싱글 버튼 롱 코트는 블루벨과 캐러멜 컬러로 선보이며, 탄생 40주년을 기념하는 라벨링을 가미해 더욱 특별하다. 문의 02-3442-5760

버버리 브라이들 백 버버리는 영국 전통 승마용품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남성용 가방 '브라이들 백'을 출시한다. 영국 승마용품에 사용하던 부드러운 브라이들 가죽을 소재로 한 가방 덮개 디테일이 특징이다. 데일리 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브라이들 백은 어깨에 멜 수 있는 사이즈의 스트랩과 크로스 보디용 스트랩이 함께 구성되며, 모두 탈착 가능해 하나의 가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전국 버버리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burberry.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700-8800

버버리

아이그너 피스토이아 아이그너는 클래식한 매력이 돋보이는 여성용 워치 '피스토이아'를 새롭게 선보인다. 피스토이아 시리즈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피스토이아의 아름다움을 담은 시리즈로, 슬림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말발굽 모티브 케이스가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 로즈 골드, 실버 컬러에 이어 투톤 콤비 컬러를 추가로 출시한다. 다양한 룩에 매치할 수 있어 데일리 워치로 활용하기 좋은 이 시리즈는 전국 갤러리어클락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284-1300

콜롬보 노블 파이버 케이트 재킷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편안함이 돋보이는 케이트 재킷을 제안한다.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색감을 더한 재킷으로, 최고급 캐시미어와 실크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다크 오렌지, 와인, 베이지, 블루 등 총 4가지 컬러로 구성된다.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본점, 부산 본점, 서울 신라호텔 아케이드, 그리고 대백 프라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13-2303

파비아나 필리피 캐시미어 케이프 파비아나 필리피는 가을을 맞아 우아하면서도 페미닌한 스타일을 완성해줄 캐시미어 케이프를 소개한다. 2016 F/W 시즌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캐시미어 케이프는 몸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가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해주며, 중앙에 가미한 퍼 장식이 포근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배가한다. 심플한 슬랙스 팬츠는 물론, 풍성한 원피스, 스커트 등 어떤 차림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이 아이템은 전국 파비아나 필리피 매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2-6905-3626

막스마라 더 큐브 컬렉션 막스마라는 가볍고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하는 아우터웨어 컬렉션 '더 큐브 컬렉션(The Cube Collection)'을 제안한다. 2008년 첫선을 보인 이 캡슐 컬렉션은 실용성과 미적 요소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 아우터를 선보인 것으로, 막스마라의 아이코닉한 라인으로 떠올랐다. 2016 A/W 시즌 큐브 컬렉션은 최상급 시베리안 거위 솜털을 사용해 무게가 가벼우며, 보디라인을 살려주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프렌치 블랙, 스페셜 블루, 캐멀 & 블루, 라이트 에크루 등 총 4가지 메인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3467-8326

펜디 맨즈 부티크 펜디는 국내 최초의 남성 전용 펜디 부티크를 오픈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층에 자리한 펜디 맨즈 부티크는 실비아 벤추리니 펜디가 디자인한 펜디의 남성 컬렉션을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의류, 신발, 액세서리, 가방, 레더 굿즈 등 펜디만의 모던함, 우아함, 그리고 정교함이 깃든 아이템으로 채운 펜디 맨즈 부티크에서 펜디의 트렌디한 최신 패션 아이템을 만나보자. 문의 02-3479-1781

에르메네질도 제냐 트리플 스티치 스니커즈 컬렉션 에르메네질도 제냐는 발등에 엘라스틱 밴드를 가미한 스니커즈 컬렉션 '트리플 스티치'를 선보인다. 간결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트리플 스티치 스니커즈는 레이스업 대신 3개의 X자형 엘라스틱 밴드를 더한 슬립온 스타일의 신발이다. 뒷굽과 밑창 부분에는 쿠튀르 컬렉션을 상징하는 3개의 X 로고가 새겨져 있다. 고급스러운 송아지가죽, 블랙 벨벳, 그리고 토 부분에 스웨이드 소재를 적용한 송아지가죽 모델로 출시한다. 문의 02-2240-6524

미우미우 〈That One Day〉 미우미우는 크리스털 모셀 감독이 연출한 〈That One Day〉를 공개한다.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단편영화 시리즈 미우미우 우먼스 테일(Miu Miu Women's Tales)의 12번째 작품인 〈That One Day〉는 뉴욕 시 외곽에 사는 17세 소녀 레이첼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떠난 자아 발견의 여정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우정, 힘,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여성 스케이터를 통해 그려낸 이 영화는 미우미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541-7443

시몬스

아우디 코리아

BMW 코리아

LIFESTYLE

시몬스 시몬스 갤러리 스토어 오픈 시몬스는 시몬스의 모든 리빙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시몬스 갤러리 스토어'를 오픈했다. 아르데코 예술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공간의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는 시몬스의 마스터피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을 만나볼 수 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뷰티레스트 컬렉션과 다양한 디자인의 프레임이 전시되어 있는 스위트 201(Suite 201)이 자리한 2층, 그리고 베딩 컬렉션인 케노샤 홈으로 채운 3층까지 다채로운 구성을 갖췄다. 또 수면 패턴, 체형,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최적의 침대를 추천해주는 수면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특별하다. 문의 1899-8182

아우디 코리아 아우디 R8 LMS컵 2016 한국전 개최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R8 LMS컵 2016 한국 경기를 성공리에 마쳤다.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한 제 7, 8 라운드 경기는 라운드별로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우디 R8 LMS컵 종합 부문, 아마추어 드라이버 부문, 마스터즈 부문, 팀 부문 등 총 4가지 타이틀로 승부를 겨뤘다. 아우디 코리아는 레이서 유경욱 선수가 소속된 '팀 아우디 코리아'로 4년 연속 대회에 참가했으며, GT3 경주에 맞춰 특별히 설계한 아우디 R8 LMS 차량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문의 02-6009-0000

BMW 코리아 뉴 X5 · X6 비전 100 에디션 BMW 코리아는 BMW 그룹 창립 1백 주년을 맞아 출시한 한정판 '뉴 X5 · X6 비전 100 에디션'을 출시한다. BMW를 대표하는 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SAV)인 뉴 X5와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AC) X6는 온 · 오프로드에서 민첩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며, BMW의 사륜구동 시스템인 X드라이브를 장착해 높은 안정감을 선사한다.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파워를 갖춘 뉴 X5와 X6 비전 100 에디션은 각각 1백 대 한정 생산된다. 문의 080-269-2200

JEWEL & WATCH

타사키

스와로브스키

위블로

까르띠에

스와로브스키 펀더멘탈 컬렉션 스와로브스키는 다양한 크기의 크리스털 펄로 볼륨감을 표현한 주얼리 컬렉션 '펀더멘탈 컬렉션'을 출시한다. 펀더멘탈 컬렉션에 사용한 크리스털 펄은 형태가 균일하고 외부 환경에 의한 변색과 변형이 적어 오랜 기간 동안 진주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려한 곡선 라인에 섬세하게 세팅한 크리스털 펄이 우아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이 컬렉션은 전국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1661-9060

위블로 클래식 퓨전 레이싱 그레이 티타늄 위블로는 간결한 라인이 모던한 매력을 발산하는 '클래식 퓨전 레이싱 그레이 티타늄'을 새롭게 선보인다. 블랙보다 부드러운 레이싱 그레이 컬러는 도회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선사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두루 잘 어울린다. 33mm, 38mm, 42mm, 45mm 등 4가지 사이즈의 케이스 모델로 출시하며, 케이스와 베젤을 메탈릭한 패턴으로 완성한 티타늄 라인과 우아한 브론즈 컬러가 돋보이는 킹 골드 라인으로 구성된다. 문의 02-2118-6208

까르띠에 끌레 드 까르띠에 워치 까르띠에는 '끌레 드 까르띠에 워치'의 스틸 버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케이스와 수평을 이루는 크라운이 돋보이는 끌레 드 까르띠에는 핑크 골드, 플라잉 투르비용, 오토매틱 스켈레톤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며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계 컬렉션으로 자리 잡았다. 10월부터 전국 까르띠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틸 버전은 기존 모델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며, 31mm, 35mm, 40mm 등 3가지 사이즈로 출시한다. 문의 1566-7277

타사키 어브스트랙 스타 펜던트 타사키는 밤하늘 가득 빛나는 별을 표현한 주얼리 '어브스트랙 스타 펜던트'를 선보인다. 별의 형상을 그래픽적으로 디자인한 펜던트 실루엣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주얼리는 타사키만의 특허 기술로 탄생한 사쿠라골드(SAKURAGOLD™) 소재와 최상급 다이아몬드로 제작해 우아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번 시즌 다양한 디자인이 추가되어 더욱 폭넓은 라인업을 자랑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등 주요 타사키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61-5558

피아제 폴로 S 피아제는 강인한 남성성을 표현한 시계 컬렉션 '폴로 S'를 출시한다. 폴로 S는 우아한 귀족 스포츠인 폴로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짙은 블루 컬러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브랜드 최초로 섬세하게 세공한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에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 1110p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으며, 블루, 실버, 그리고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13-2270

피아제

BEAUTY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리프트 리제너레이팅 유스 컬렉션 에스티 로더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2가지 꽃의 성분을 담은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리프트 리제너레이팅 유스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한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꽃인 히말라야 젠티안과 불멸의 꽃으로 알려진 브라질 에버라스팅의 진귀한 원료로 완성한 플로랄릭시어™듀 성분이 노화로 느려진 피부 재생 활동을 촉진해 탄탄하면서도 맑은 피부를 완성해준다. 세럼, 크림, 그리고 아이크림으로 구성된다. 문의 02-3440-2772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스킨케어 부스팅 인퓨전 아티스트리는 피부 보호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선사하는 에센스 '인텐시브 스킨케어 부스팅 인퓨전'을 출시한다. 인텐시브 스킨케어 부스팅 인퓨전은 피부 정화, 피부 에너지 부스팅, 피부 보호막 형성을 돕는 스마트 딥 인퓨징 콤플렉스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리퀴드 크리스털 테크놀로지로 구성되어 보습과 영양은 물론, 피부 장벽 강화와 스킨케어 성분 흡수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선사한다. 문의 1588-0080

시슬리 끄렘므 뿌르 르 꾸 시슬리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목을 위한 안티에이징 넥 케어 크림 '끄렘므 뿌르 르 꾸'를 제안한다. 콩 섬유 추출물,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시어버터, 해바라기 오일 성분이 목 라인을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며, 귀리 씨 추출물, 라타니 추출물, 레이디스 맨틀 추출물이 강력한 타이트닝 효과를 선사해 목선을 더욱 또렷하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소량을 덜어 양손에 바른 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80-549-0216

멜비타 오가닉 뷰티 오일 멜비타는 피부 고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오가닉 뷰티 오일 7종을 소개한다. 멜비타만의 엄격한 수확 원칙에 따라 채취한 원료만 사용해 만든 순도 100% 오가닉 뷰티 오일로, 원료의 효과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멜비타의 베스트셀러인 아르간 오일을 비롯해 호호바, 로즈힙, 니겔라, 칼렌듈라, 아보카도, 그리고 아프리코 커넬 오일로 구성된다. 문의 02-3014-2997

SK-II 파워 아이크림 & 피테라 키트 SK-II는 신제품과 베스트셀러 정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세트 'SK-II 파워 아이크림 & 피테라 키트'를 출시한다. 농축 피테라™, 콩 단백질, 그리고 효모 단백질을 결합해 만든 R.N.A. 아이 콤플렉스를 함유한 R.N.A. 파워 아이크림은 탄력을 잃은 눈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 또렷한 눈매를 완성해준다.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워터 에센스 피테라 에센스는 환절기로 거칠어진 피붓결을 매끄럽게 가꿔주는 아이템. 피부에 꼭 필요한 2가지 코즈메틱으로 구성한 SK-II 파워 아이크림 & 피테라 키트는 전국 백화점 SK-II 매장과 주요 온라인 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80-023-3333

에스티 로더

아티스트리

시슬리

멜비타

SK-II

HUBLOT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02 2118 6208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02 3213 2238
갤러리아 EAST 02 540 1356
신세계백화점 본점 02 310 533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 3479 6021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 660 3132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 245 2221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점 051 810 4123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051 745 1346
hublot.com
위블로
클래식 퓨전 에어로문 킹 골드
문페이즈, 캘린더, 일, 월이 표시되는
사파이어 다이얼. 킹 골드 케이스